

<원기 89년도 영산성지 법인기도 세미나>

법인기도와 원불교 신앙

◀ 연구 발표 ▶

◆ 발표1 : 법인기도봉 지정의 제문제

- * 발표자/ 서문성 교무(교화훈련부)
- * 토론자/ 박용덕 교무(가수교당), 김선명 교무(영산교당)

◆ 발표2 :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와 원불교 신앙

- * 발표자/ 장진수 · 전흥진교무(영산원불교대학교)
- * 토론자/ 김 현 교무(원광대교당), 신명국 교무(원광대)

◆ 발표3 : 법인기도에 대한 교단 의식조사

- * 발표자/ 남궁문 교도(원광대)
- * 토론자/ 성명종 교무(흥덕교당)

■ 일 시 : 원기 89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영산원불교대학교

■ 주 최 : 교화연구소 · 소태산사상연구원

원 불 교

◁◁ 진행 순서 ▷▷

사회: 백광문 교무

1. 개 식

2. 입 정

3. 설명기도

4. 법어봉독

5. 격려사

6. 발표 및 토론

◆발표1 : 법인기도봉 지정의 제문제.....1

* 발표자/ 서문성 교무(교화훈련부)

* 토론자/ 박용덕 교무(가수교당), 김선명 교무(영산교당)

◆발표2 :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와 원불교 신앙.....17

* 발표자/ 장진수 · 전흥진교무(영산원불교대학교)

* 토론자/ 김 현 교무(원광대교당), 신명국 교무(원광대)

◆발표3 : 법인기도에 대한 교단 의식조사.....31

* 발표자/ 남궁문 교도(원광대)

* 토론자/ 성명중 교무(흥덕교당)

7. 질의 및 종합토론

8. 종합정리

9. 폐 식

법인 기도봉 지정의 제문제

서문 성 교무(교화훈련부)

원불교 교례(敎禮)에 있어서 경축은 ‘정례경축과 수시경축이 있다. 정례경축은 신정절, 대각개교절, 석존성탄절, 법인절로서 사대경절이다.’ 라고 원불교 예전에 밝히고 있다.

교단에 있어서 사대경절은 연중행사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중앙총부를 비롯하여 각 교당 그리고 교도들에게 경축 본연의 의미로 인식되기 보다는 하나의 행사로서 여겨져 경축다운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대경절 뿐만이 아니라 육일대재와 명절대재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대경절과 대재가 교단의 의식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는다면 교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화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대경절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현실이기에 석사이상의 논문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대각개교절과 법인절에 대하여는 원불교 신문, 원광 등에 다수 연재되어 왔다. 법인절에 대한 연구와 기획은 상당부분 연재되었으나 법인 기도봉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그리하여 기도봉이 기도하는 단체 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져 기도를 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이 남는다. 이는 아직 법인성사 구인 기도봉이 교단적 성직지로서 자리매김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원불교 교화훈련부에서 법인성사 85주년을 기념하여 법인기도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는 의미로서 법인 당시의 기도를 최대한 재현하여 신앙운동으로 이끌고자 한다. 그리하여 오는(원기89년) 7월 24일-25일, 7월 31일-8월 1일, 8월 7일-8일까지 3차에 걸쳐 교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즈음에 법인 기도봉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법인기도가 역사와 문화에 바탕하여 신앙차원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상황과 각종 자료를 통하여 법인 기도봉 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본 연구는 바란다.

II

법인절은 우리 회상의 구인선진이 백지혈인의 법인성사로서 본교 창립정신의 표준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예전에는 밝히고 있다.

법인기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법인성사를 나뉜 후 18년이 지난 원기 22년-원기 23년 11월에 법인기도 당시 중앙 단원인 정산 송규(1900-1962)종사의 <<불법연구회 창건사>>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원기 38년에 정산종사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에 간략히 밝히었고, 원기 47년에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3, 14장에 창건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강령으로 법인성사를 밝히었다. 원기 60년 발행된 <<원불교 교사>>에는 구인 단원의 기도 '백지혈인의 법인성사'에 당시 상황을 밝히었다. 이 외에는 <<원광>>11호(원기 40년 9월호) 정산종사의 법무실장인 범산 이공전은 사설에서 <7월 26일을 기념하자>고 했다. 그리하여 다음해 정산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법인기념일'로 정하여 뜻을 새기었다. 이때부터 법인절은 교단 공식 기념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원기 46년 <<법인의 날 송가>>를 제정하고, 범산 이공전이 <청년회보> 11호에 '법인성사와 법인기도'에 대하여 발표하여 법인기도의 역사적 이해를 위한 접근이 이루어 졌다.

그 후 유병덕, 전팔근, 한정석, 이은석, 송인걸, 한정원, 송정윤, 김홍철, 설윤환, 박용덕, 이운권 교무 등이 법인기도에 대하여 원광, 원불교 신문, 교학연구 등에 연구 발표하였고, 매년 원불교 신문사와 월간원광에서 법인절 기념 좌담 등으로 법인의 정신을 새기고 있다.

법인정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연구가 되었으나 법인기도 당시 기도봉에 대하여는 박용덕 교무의 원불교 초기교단사 1권 <<소태산의 대각과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에서 현재의 구인 기도봉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과 역사적 측면에서 기도봉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으며, 본 연구자가 원불교 신문 제1114호 (원기 86년 8월) 법인절 기념 '법인성사 기도봉 순례'에서 구인 기도봉을 교단적 합의에 의한 지정이 시급함을 제기하였을 뿐 아직까지 두렷한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III

교단에서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원기 41년부터 법인기념일을 지정하여 시행하였다. 법인기도를 올려 법인성사를 나뉜 영산에서는 법인 기도봉 기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는다. 다만 영산선원 당시 교무일지등을 참조해 보면 ‘원기 58년 7월 26일 오후 8시, 구간도실터에서 거행하였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는 기념식이 아닌 기도식으로 추정된다.

‘원기 59년 7월 26일 오후 7시 30분, 중앙청년회 보은단과 영산선원생들이 촛불행진을 하였다. 원기 60년 오후 7시 30분-10시까지 각 기도봉에서 기도를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구인 기도봉에서 기도를 올린 최초의 기록이다. 그 후로 구인 기도봉에서 법인절을 기념하여 기도를 올린 것으로 전해지나 뚜렷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영산선원에서 법인기도가 정례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7월 26일 행하여지던 법인기도가 어느 때부터인가 법인절 전야제 기도로 정착되어 지금까지 법인절 전야에 행해지고 있다. (전야 기도도 의미가 있으나 이는 기도 날자를 다시 재고 해 볼 문제라고 본다.) 음력으로 시행하던 법인기도를 양력으로 환산하여 바뀌면서 8월 21일로 법인절 기념식이 행해지므로 법인절 전야제 기도봉 기도가 8월 20일에 행해지고 있다.

IV

원불교 <유물 및 사적관리 규정>이 원기 85년 개정(교규 제 88호)되었다. 그리하여 <유물 및 사적관리 소위원회>를 열어 이 결과를 토대로 원불교 성적지, 사적지, 유물에 대하여 지정하였다. <원불교 성지 사적분류>에 법인기도 구인봉이 1-성11(별)로 공식지정 되었다. ‘별’로 지정한 것은 구인 기도봉 중에 중앙봉과 옥녀봉 일부만이 교단소유의 임야이므로 교단소유가 아닌 기도봉이 많아 ‘별’로 지정하였다. 사적분류에서 구인 기도봉 전체를 성적지로 묶어 지정 하였을 뿐 기도봉 마다를 따로 구분하여 지정하지는 않았다.

V

지금까지 영산에서 구인 기도봉의 표시된 구인선진과 방위 그리고 각종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영산대학교에서 법인기도

	법 명	방위	봉이름	비고
1산	이재철	乾方(서북)	설레마위봉	
2산	이순순	坎方(북)	장다리봉	
3산	김기천	艮方(북동)	밤나무골봉	
4산	오창건	震方(동)	눈썰마위봉	호랑이 눈썰마위봉
5산	박세철	巽方(동남)	상여봉	상여마위봉
6산	박동국	離方(남)	옥녀봉	
7산	유 건	坤方(남서)	공동묘지봉	천기동 뒷산봉
8산	김광선	兌方(서)	대파리봉	
정산	송 규	中央(地)	중앙봉	

<표 2> 원불교 사전

	법 명	방위	봉이름	비고
1산	이재철		설레마위봉	
2산	이순순		쫓대봉	장다리봉
3산	김기천		밤나무골봉	
4산	오창건		눈썰마위봉	
5산	박세철		마촌앞산봉	상여봉
6산	박동국		옥녀봉	
7산	유 건		공동묘지봉	
8산	김광선		대파리봉	
정산	송 규		중앙봉	

강(와탄천)을 건너기 어려우므로 후에 쫓대봉은 장다리봉, 마촌앞산봉은 상여봉으로 옮기게 되었다.

<표 3> 목산 박창기 선진의 ‘구인 선진 기도소 봉우리’

	법 명	방위	봉이름	비고
1산	이재철		촛대봉	설레바위봉
2산	이순순		마촌앞산봉	촛대봉
3산	김기천		옥녀봉	밤나무골봉
4산	오창건		장다리봉	눈설바위봉
5산	박세철		설레바위봉	마촌앞산봉
6산	박동국		대파리봉	옥녀봉
7산	유 건		공동묘지봉	
8산	김광선		밤나무골봉	대파리봉
정산	송 규		중앙봉	

<표 4> 박용덕 저, 원불교 초기교단사 1권

	법 명	방위	봉이름	비고
1산	이재철	乾方(서북)	옥녀봉	촛대봉
2산	이순순	坎方(북)	마촌앞산봉	
3산	김기천	艮方(북동)	촛대봉	옥녀봉
4산	오창건	震方(동)	장다리봉	
5산	박세철	巽方(동남)	대파리봉	설레바위봉
6산	박동국	離方(남)	공동묘지봉	대파리봉
7산	유 건	坤方(남서)	밤나무골봉	공동묘지봉
8산	김광선	兌方(서)	설레바위봉	밤나무골봉
정산	송 규	中央(地)	중앙봉	중앙봉

<표1>, <표2>, <표3>, <표4>를 보면은 각기 다른 주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은 원불교 영산대학교에서 법인기도 전야제 구인 기도봉에서 기도를 올리는

봉우리와 방위, 기도 당시 선진을 각 기도봉과 각종 자료에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1산에서 8산 까지를 문왕 8괘에 맞춰 방위를 맞추었으나 방위와 봉우리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 1산 이재철 건방(서북)은 설레바위봉이 아닌 건방(서북)위는 옥녀봉에 해당된다.

2산 이순순 감방(북)은 장다리봉이 아닌 감방(북)위는 마촌앞산봉에 해당되는 봉이다.

<표2>는 원광대학교 종교문제 연구소에서 펴낸 <<원불교 사전>>의 내용이다.

강 건너 마촌앞산봉과 촛대봉을 상여바위봉과 눈썰바위봉으로 옮기었으나 <표2>에서는 장다리봉과 상여봉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장다리봉은 기도 당시 8괘에 맞춰 기도가 이루어진 곳이다.

1산에서 8산까지 각 봉우리가 기도인과 방위, 방향이 서로 맞지 않고있다.

예) 1산 이재철의 기도봉은 설레바위봉으로 표기되었으나 건방(서북)위 방위는 옥녀봉에 해당된다.

<표3>은 원기 28년 대중사 열반 후 대중사를 추모하기 위해 목산 박창기가 이리제일 사진관 기사를 대동하고 찍은 대중사 성적 중에 ‘구인 선진 기도소 봉우리’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맞춘 선진과 각 봉우리이다. (본 연구자는 사진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도봉과 구분하기 어려운 곳이 있었다. 그리하여 박용덕 교무의 초기 교단사 1권을 참조하였다.)

<표4>는 박용덕 저, 원불교 초기교단사 1권 <<소태산의 대각 방언조합 운동의 전개>>에서 밝힌 바 있고, 본 연구자도 원불교 신문 제 1114호에 기고한 ‘법인절 기념 법인성사 기도봉 순례’에서 위와 같이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강을 건너기 어려워 후에 마촌앞산봉을 상여바위봉, 촛대봉은 눈썰바위봉으로 옮겼다.

<표1>과 <표2>와 같은 내용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영산에서 법인 기도봉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 영산성지 구인 기도봉에 대한 지정 작업과 각 봉우리에 대한 표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산선원 초대원장(원기 48년 6월-원기 54년 4월)을 역임한 향산 안이정 종사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본인이 영산 선원장으로 재직 전에는 구인 기도봉에 대한 지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다. 그리하여 법인기도 당시 선진인 1산 이재철, 4산 오창건, 7산 유건 선진님의

생전 구술과 영산에 거주하는 대종사 당대의 제자인 장종선, 최복경 교도의 고증을 통하여 정했다. 그중 최복경 교도의 고증을 많이 참조 하였다.

구인 기도봉은 문왕 8괘에 맞춰 건, 감, 간, 진, 손, 이, 곤, 태의 순으로 정하고, 마촌앞산봉과 촛대봉은 강을 건너기 어려워 상여바위봉과 눈썰바위봉으로 옮겨서 기도 하였다 하여 그렇게 정했다.”

본 연구자는 향산 종사에게 현재 영산에서 그리고 교단에서 통영되고 있는 기도봉은 문왕 8괘에 맞춰지지 않고 있으며 <표1>과 같이 통영되고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향산님이 기도봉 지정을 하셨는데 어찌하여 틀리게 되었습니까? 과거 각 봉우리에 흰 페인트로 기도봉과 기도선진님의 표시를 한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시간이 흘러 없어져 버렸는데 페인트 등의 표시는 향산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지정은 하였으나 봉우리의 표시는 하지 않았어, 후에 누가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누구인지를 나도 모르겠어. 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다.

누가 무슨 근거로 각 봉우리에 페인트 등으로 표시를 했는지는 모르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처음 법인기도 시작할 때 정했던 마촌앞산봉과 촛대봉은 강을 건너기가 어려워 상여봉과 눈썰바위봉으로 옮기고 대종사의 명에 따라 바꾸어 가며 기도 올렸던 것을 근거로 한 것 같다.

VI

<불법연구회 창건사> 제 9장 단원의 첫 조단에서 원기 2년 (1917년) 7월 26일 남자 정수위단을 조직 하였으니 그 정원(定員)은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단장 대종사

건방 이재풍, 감방 이인명, 간방 김성구, 진방 오재겸, 손방 박경문, 이방 박한석, 곤방 유성국, 태방 김성섭

중앙은 비워 두었다가 1년후 (원기 3년 7월) 송도군을 서임하였다.

(이때는 대종사께서 구인제자에게 범명을 내리기 전임)

법인성사를 나뉜 원기 4년 7월 26일(양 8월21일)을 창건사는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법인성사를 구간도실에서 나뉜 후 11시가 지난 후에 대종사는 단원들에게 중앙봉에서 기도를 마치고 오게 한 후 각 단원에게 범명과 범호를 하사하였다고 했다.

이때 내려준 법명과 법호는

속명	법명	법호
이재풍	재철	1산
이인명	순순	2산
김성구	기천	3산
오재겸	창건	4산
박경문	세철	5산
박한석	동국	6산
유성국	건	7산
김성섭	광선	8산
송도균	규	정산

(법호는 대종사 변산에 입산한 후 내려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인성사 후 내려준 법호와 단원의 첫 조단에서 남자 정수위단원을 조직할 때 정원과 일치하고 있다.

문왕 8괘에 맞추어 “건,감,간,진,손,이,곤,태”의 순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문왕 8괘에서 건방위는 서북쪽, 감방위는 북쪽, 간방위는 북동쪽, 진방위 동쪽, 손방위 동남쪽, 이방위 남쪽, 곤방위 남서쪽, 태방위 서쪽을 말한다.

주역의 8괘에서 복희 8괘와 문왕 8괘중 대종사는 문왕 8괘를 응용하여 첫 조단인 남자 정수위단을 8방 방위를 정하였다. 복희 8괘는 하도(河圖)를 근거로 작성된 선천도로 공간적 원리를 나타낸 반면, 문왕 8괘는 시간적 원리를 나타낸 것으로 천지가 변화하여 해와 달이 운행되고 춘하추동 사계절이 교류하는 변화 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복희 8괘는 선천적 방위를 나타낸 반면 문왕 8괘는 후천적 방위를 나타낸 것이다.

VII

현재 구인 기도봉 중에 중앙봉과 옥녀봉만이 변할 수 없는 정확한 장소이고 이 외의 봉우리는 봉우리 위치와 기도장소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구인 기도봉이 때에 따라 바뀌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6산 박동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7산 유건, 송산 박광전의 구술과 8괘 방위에 따른 이방이 (남향) 공동묘지봉이므로 마촌앞산봉, 천기동뒷산봉, 옥녀봉, 장다리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인 기도봉에 대하여 송산 박광전은 ‘구인봉이 어디 정해 졌간디’라 하였으며(박용

덕 교무 구술취재), 법산 이공전도 ‘1산님 생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1산님께서 옥녀봉에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현재 영산에서 지정되어 법인기도 올리는 기도봉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다.

대중사 당대 교도로 영산에 거주했던 장종선도 ‘7산님 한테 들었는데 처음에 건,감,간,진,손,이,곤,태로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늘 이리저리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봉은 문왕 8괘에 맞춘 기도봉에서 기도를 시작하였다가 와탄천을 건너기 어려워 법성면에 속하는 대덕산 줄기인 마촌앞산봉(마촌주민들은 마을 앞산이지 특별한 이름이 없다고 한다.)과 촛대봉(촛대봉은 영산쪽에서 볼때 촛대에 불 밝힌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입석리 등에서는 산 이름을 모르고 있다.)에서 올리던 기도를 백수읍 길룡리 구수산의 두 봉우리로 옮겨오고 또 대중사의 명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인성사를 나뉜 당일날은 구인 기도봉 전체에서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닌 구인단원 모두가 중앙봉에서 올렸으며, 법인기도 해제식은 10월 6일(음) 영산과 변산 월명암 북쪽 쌍선봉에서 올렸다.(변산에서는 대중사, 정산, 4산이 함께 해제식을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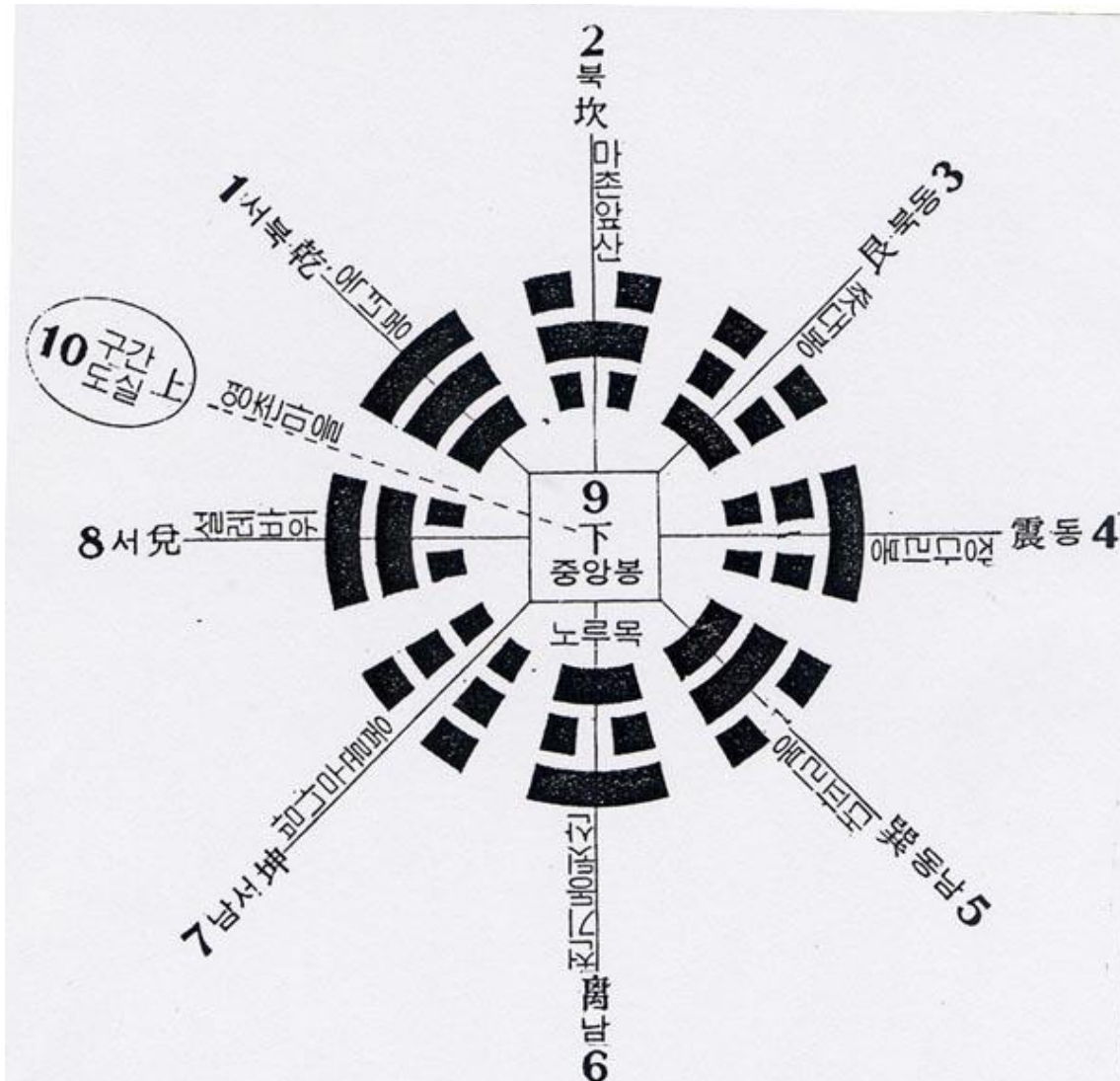
VIII

법인기도 도중 사세에 따라 여러 차례 기도봉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맨 처음 시도되었던 데로 문왕 8괘의 방위에 준해 기도봉을 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법 명	방위	봉이름	비고
1산	이재철	乾方(서북)	옥녀봉	
2산	이순순	坎方(북)	마촌앞산봉	상여바위봉
3산	김기천	艮方(북동)	촛대봉	눈썰바위봉
4산	오창건	震方(동)	장다리봉	
5산	박세철	巽方(동남)	대파리봉	
6산	박동국	離方(남)	공동묘지봉	
7산	유 건	坤方(남서)	밤나무골봉	
8산	김광선	兌方(서)	설레바위봉	
정산	송 규	中央(地)	중앙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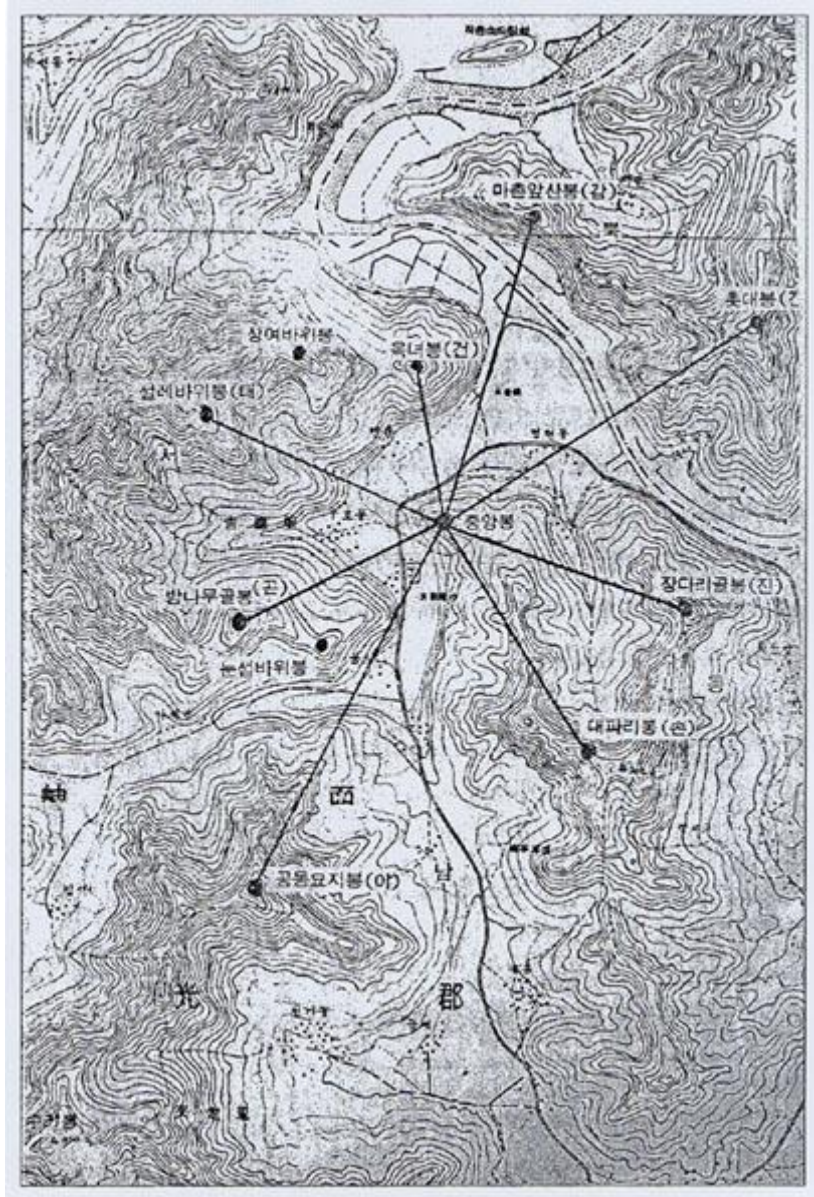
(마촌앞산봉은 상여바위봉, 촛대봉은 눈썰바위봉으로 옮겨 기도를 올렸다.)

<그림 1> 8괘도와 기도봉(박용덕 교무의 초기교단사 1권에서 인용)



<그림 2> 문왕 8괘도에 준한 구인 기도봉 위치

(박용덕교무의 초기교단사 1권에서 인용)



IX

이상은 각 기도봉의 방위와 기도올린 선진을 살펴보았다.

법인 기도봉을 정하는데 있어서 기도봉 어디를 기도장소로 정하느냐는 또 하나의 문제이다.

기도봉 기도 장소를 영산선원(영산원)을 기점으로 정하여 중앙봉은 400m떨어진 산봉우리로, 설레바위봉은 서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장다리봉은 동남쪽 1km 떨어진 지점, 밤나무골봉은 남쪽으로 1.5km떨어진 지점에, 눈썰바위봉은 서남쪽으로 약 1km떨어진 지점에, 상여바위봉은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옥녀봉은 서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공동묘지봉은 남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대파리봉은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지금까지 <<새희상 거룩한 터>>와 영산 원불교 대학교에서 기도안내서, 기타에 기록하고 있다.(거리가 현실과 맞지 않음) 그러나 기점을 영산원이 아닌 구간도실터로 하여 기도봉과 기도장소가 정하여진 후에 거리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수학시절인 원기 70년대에 각 기도봉에 올라 기도를 올릴 때에는 기도봉 위치가 현재 영산에서 통영되고 있는 기도봉과 선진의 기도표시가 바위에 혹은 나무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옛 흔적(페인트 표시 등)은 찾을 수 없다. 원기 86년에 장석준 교무와 김형진 교우와 함께 기도봉을 올랐을 때는 과거와 기도봉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상여바위봉은 능선에서 중턱 너럭바위로, 마촌앞산봉도 옥녀봉 방향으로 공동묘지봉은 약간 위쪽으로 바뀌어져 기도장소를 표시하고 법인기도 전야제 산상 기도과 평상시 기도봉을 찾는 순례인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으며, 원기 89년 6월 2일에 장진수 교무와 대파리봉을 올랐을때도 과거의 위치와 약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어 상호 혼돈만 있었다.

이는 언제부터 현재의 위치로 바뀌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기도장소로 지정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맞고 틀리고, 과거에 기도하던 곳이 맞다 틀리다 하는 문제의 제기는 아니다. 관계 기관에서 법인 기도봉 지정과 함께 기도장소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며 앞으로 기도봉과 기도장소 위치가 수시로 변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에서 기도봉과 기도장소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지정하고 기도장소를 알 수 있는 표지석 또는 기념물을 세워야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변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표지석 등 기념물을 세우는 것은 현실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원불교 소유의 땅인 중앙봉은 가능하나 나머지 봉우리는 사유지인 관계로 임야 소유주의 협조가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그림 3> 구인기도봉 현재의 모습



(1) 설레바위봉 (2-1) 현재 기도하고 있는 상여바위봉 중턱 너럭바위 (2-2) 상여바위봉 (3) 옥녀봉
 (4-1) 현재 영산원불교대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변화된 마흔앞산봉 (4-2) 마흔앞산봉 (5) 촛대봉



(6) 장다리봉 (7) 중앙봉 (8-1) 대파리봉 (8-2) 현재 익산 원불교 대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 (9) 눈썹 바위봉
 (10-1)공동묘지봉 (10-2) 현재 영산 원불교 대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 공동묘지봉 (11) 밤나무골봉

<그림 4> 목산 박창기가 찍은 과거 기도봉

<그림 5> 현재의 기도봉 기도터 모습과 과거 기도봉 기도터에 표시

X

각 기도봉의 이름이 어떤 형태로 현재에 불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지명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영산 주민들에게서 불리워지는 이름과 원불교 역사적 문화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본래 이름과 약식 이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도봉 이름이 불리워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 기도봉은 구수산 아홉 봉우리와 대덕산 줄기의 두 봉우리, 변산 쌍선봉을 합하여 12봉우리이다. 앞으로 법인기도에 대한 교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구인선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구인선진 후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법인기도가 교단전체에 바르게 정착되어 법인정신으로 거듭날 때 원불교는 대중사의 개교정신에 바탕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발표1 - 법인기도봉 지정의 제문제

발표자 - 서문 성 교무

토론자 - 박용덕 김선명 교무

▶ 박용덕 - 과거 20년전부터 통신강좌 조사편, 초기교단사에서 계속 말했던 내용이다. 원불교신문에도 여러 차례 발표했다. 누가 어느 봉우리에서 기도를 했느냐보다 대중사님께서 89년전에 문항 팔괘도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이해, 그 방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 방위 본부인 구간도실에서 지시했을 것이다. 누가 어느 곳에서 올렸는가 고증하는 문제는 결국 얼마나 정확하게 문항팔괘에 맞느냐에 따라 새롭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위에 맞고 구간도실과 지금 현실에 맞게 하면 좋겠다. 이름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동묘지봉 이미지 등 선입견이 있다. 일산봉 이산봉 삼산봉 사산봉 오산봉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기도는 백일기도와 이백일 기도가 있었다. 백일기도가 실패한 후 백십일뒤에 사무여한, 무아봉공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 김선명 - 법인기도봉 지정에 대한 연구를 보며, 대중사께서 왜 굳이 팔방위에 맞춰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전통신앙 상신에 대한 신앙행위와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천지 시방의 개념속에 창생제도를 하시고자 하는 포부가 담겨있다. 초기교단 문헌을 통해 문항팔괘를 선택한 배경을 연구해야 하겠다. 그동안 선진 열반시 자료나 대각전에도 팔괘기가 나와 있다. 기도봉 장소의 문제, 방위 지정의 문제, 기도봉 명칭의 문제에 대한 교단적 합의가 필요하다. 밤나무골봉, 대파리봉 등 전통지명과 자연환경과 인문지략적 측면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지리적 명칭과 교단적 합의에 따라 일산봉 이산봉 함께 사용할 수도 있을것이다. 또한 구인선진님의 후손들과 지역주민의 문제도 중요하다. 영산이 근원성지라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정서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초기교단은 조합원으로써 한 살림하고 살았던것처럼 영산대학교, 영산사무소, 교당, 지역주민들이 초기교단의 공동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

▶ 나상호- 문항팔괘에 준해서 기도봉을 정했다고 했는데 그당시 기도봉을 정하기 전에 문항팔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합의가 대중사, 제자들 사이에 있었는지 궁금하다.

▶ 서문성 - 법인기도 하기전 원기 2년 남자 정수위단회를 정할 때부터 사용되었다. 문항팔괘는 시간적 원리으로써 후천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선진님들 가운데 유학자도 있었으므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 장진수 - 3월 26일 기도를 시작하면 7월 10일이 백일째 되는 날이다. 그때 끝나치지 않고 전체 기도 번수를 세어보면 21번 이다. 초기교단에서는 백일기도라는 개념보다 정례산상기도 정도였지 않은가 싶다. 현재 보편적으로 백일기도를 중심으로 가는 풍토가 맞는것인가

▶ 박용덕 - 백일간 날짜를 꼭 정해 한 것은 아니다. 일주일한번, 열흘에 한번 정례적인 기도가 맞다. 전통적인 신앙측면에서 백일기도가 보편화되었지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법인기도(法認祈禱)의 역사적 의의와 원불교 신앙

전홍진 · 장진수 교무(영산원불교대학교)

목 차

1. 서론	1) 사무여한 무아봉공
2. 법인기도	2) 십인일심 세계일
(1) 당시의 시대상황	4. 법인기도와 원불교 신앙
(2) 법인기도의 진행	(1) 원불교 신앙
(3) 백지혈인의 법인성사	(2) 법인기도와 원불교 신앙
3.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	1) 법인기도와 진리불공
(1) 정법회상의 법계인증	2) 법인기도와 실지불공
(2) 법인정신의 핵심, ‘지공무사’	5. 결론 및 제언
(3) 법인정신의 계승	

1. 서론

백지혈인(白指血印)의 법인성사(法認聖事)가 있는 후 올해로 86돌을 맞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날을 명절로 챙기게 된 것은 이번으로 50번째이다.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기원은 원기 40년 8월, 「원광」 11호 사설의 「七月二十六日을 기념하자」는 제안에서 시작된다. 그해 음력 당일에 총부에서만 첫 행사를 보게 된 이 기념일은 이듬해(원기 41년) 2월의 ‘교무연합회’에서 우리 교의 요일로 결정되었고, (정산) 종법사에 의하여 「법인기념일(法認紀念日)」로 명명되는 동시에, 매년 7월 26일로 이 날을 기념하게 되어 그후부터 각 교당에서 일제히 행사를 가져오게 되었다¹⁾.

이렇게 「법인절(法認節)」은 법인성사를 나뉜 원기 4년 음력 7월 26일을 기념하여 그 기념일을 7월 26일로 가져오다가, 27년째 기념행사를 치루게 된 원기 68년부터 일자를 기미년(원기 4년) 당년의 양력 일자로 개정하여 양력 8월 21일에 시행하게 된다²⁾.

1) 이공전, <법인의 날 송가>, 「원광」 36호, 1961.7.

2) 박용덕, <하늘을 뚫은 높은 산이여>, 「원광」 116호, 1983.9.

86회 법인절을 맞이한 지금, 다시금 법인기도에 대한 교단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화 훈련부는 7~8월에 4차례에 걸친 법인기도 재현 행사를 추진중이다. 그 중 4회째는 원불교청년회 4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청년회가 주관하여 이루어지며, 그 흐름상에서 현재 백일간의 기도가 진행중이다.

다시 법인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한 교수는 “21세기를 대비한 원불교 개혁정신”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교단)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매년 혈인성사가 없으면 법인절을 성대하게 치를 생각을 말아야 한다」며, 「초창기의 대각정신과 함께 혈인정신으로 돌아가야 원불교가 21세기를 이끌 미래종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³⁾.

교단 100주년을 1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교단적 흐름과 주장은 교단의 풀어가야 할 과제의 해답이 초기 정신에서 찾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기도의 전개 과정을 되짚아가며,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법인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기도를 원불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법인기도(法認祈禱)⁴⁾

(1) 당시의 시대 상황

법인기도는 원기 4년(1919, 己未) 3월 26일에 시작, 그 해 10월 6일에 해제를 하게 된다. 기도가 시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간단히 알아보자.

먼저 교단 밖 상황을 보면, 법인기도가 진행되었던 1919년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던 3·1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해이다. 이러한 3·1운동은 일제의 식민지 확정에 대한 민족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19년(己未年)은 국제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민족자결주의가 거론되던 해였고, 국내적으로는 한일합방 이후 계속되어 온 일본제국주의의 착취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이 민족 모두에게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을 것이며 이를 표출한 것이 3·1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⁵⁾.

다음은 교단 내 상황을 창립 과정의 흐름속에서 살펴보자⁶⁾. 원기 원년(1916) 음력 3월 26일 이른 새벽, 소태산 대종사(이하 대종사)의 대각으로 우리 회상은 비롯된다. 대각 후 대종

3) 이면우, “21세기를 대비한 원불교 개혁정신”, 『한울안신문』 417호 7면, 2004.5.2~8

4) 법인기도는 다른 명칭으로 혈인기도, 구인기도, 단원의 기도 등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혈인기도(血印祈禱)’는 백지장(白指章)을 찍은 자리에 혈인(血印)의 이적이 나타난 극적인 순간을 강조한 표현이라면, ‘구인기도(九人祈禱)’는 대종사의 첫 제자들인 구인 제자가 아홉 봉우리에서 일제히 기도를 올렸음을 드러낸 표현이며, ‘(구인) 단원의 기도’란 교단 최초 단의 엄선된 단원들의 기도였음을 드러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법인기도(法認祈禱)’란 표현은 정법 회상이 법계 인증을 받게 된 일대사건을 표현한 말로써 이 표현이 원기 4년에 이루어진 일련의 기도행사의 성격과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 한정원, 「법인성사와 순교정신」, (『원불교 70년 정신사』, 원불교출판사, 1989), 145-146쪽.

6) 「교사」, (『원불교전서』, 이리:원불교출판사, 1977), 1038-1051쪽.

사는 특별히 진실하고 신심 굳은 여덟 사람을 먼저 선택하여, 원기 2년(1917) 7월 26일에 남자 수위단을 조직한다⁷⁾. 그리고 원기 2년(1917) 8월, 지방 세계를 위하여 큰 공부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부할 비용과 사업할 자금을 예비할 목적으로 회상 기성(期成)의 한 기관으로 「저축 조합」을 창설한다. 원기 3년(1918) 3월에는, 저축 조합의 저축금을 수합하여 방언공사를 착수하고, 그 이듬해인 원기 4년(1919) 3월에 방언공사의 준공을 보게 된다.

방언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조합원들은 「우리의 약한 힘으로써 이 거대사(巨大事)를 착수하기로 하면 이 석상(席上)에서 한갓 언약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철저한 생각과 희생적 노력을 미리 결심하여야 한다」는 대중사의 명을 받들어 오직 순일한 마음으로 지사불변(至死不變) 하겠다는 서약을 올리는데 그 서약서는 다음⁸⁾과 같다.

우리들은 다행히 대도(大道) 대덕(大德)의 초창 시대를 당하여 외람히 단원의 중한 책임을 맡았는 바 마음은 한 사문(師門)에 바치고 몸을 공중사(公衆事)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 공사를 착수하오니, 오직 여덟 몸이 한 몸이 되고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욕(榮辱) 고락(苦樂)에 진퇴를 같이 하며,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써 혈심 서약하오니 천지신명(天地神明)은 일제히 통촉하사 만일 이 서약에 어긴 자 있거든 밝히 죄를 내리소서. 또는, 중사주께옵서도 이 배신자에 대하여는 조금도 용서하지 말으시고 상당한 중죄를 내리시며, 일반 동지께서도 공동 배척하여 어떠한 죄벌이라도 다하여 주소서. 만일 배신 행동을 자행한 자로는 일체 죄벌을 감수하겠으며 또한 조금도 여한이 없을 것을 이에 서명 날인 함.

방언공사 때 올린 서약서의 내용을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이 서약서의 내용에 담긴 「몸을 공중사(公衆事)에 다하여」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 사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여 종신토록 그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써 혈심 서약」 한다는 내용 등에서 법인기도의 정신과 일관되는 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언공사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인 1919년 3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중사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시국에 대하여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 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 드리자⁹⁾」고 하였다.

(2) 법인기도의 진행

대중사는 원기 4년(1919) 3월, 방언 공사를 마친 후, 9인 단원에게 다음¹⁰⁾과 같은 뜻을 전한다.

7) 중앙은 비워 두었다가 1년 후인 원기 3년 7월에 송도군을 서임함.

8) 「불법연구회 창건사」, (『한 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262-263쪽.

9) 「법어」 국문편 3장, (『원불교전서』, 이리:원불교출판사, 1977),

10) 「교사」, 앞의 책, 1052-1053쪽.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 옛 성현들도 창생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 하여 천의(天意)를 감동시킨 일이 없지 않나니, 그대들도 이 때를 당하여,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불지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私)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이러한 대중사의 지도를 받들어 단원들은 창생 제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 이에 3월 26일(음)에 시작하여, 10일간 재계(齋戒)¹¹⁾로써 매 삼육일(每三六日)(6일 · 16일 · 26일)에 기도식을 거행하되,

- 치재(致齋)¹²⁾방식은, 첫째 마음 정결을 위주하고, 계문(戒文)을 더욱 준수하며, 육신도 자주 목욕재계하고,

- 기도 당일에는 오후 8시 안으로 일찌기 도실에 모여 대중사의 교시를 받은 후, 9시 경에 기도장소로 출발하였다. 기도는, 10시 부터 12시 정각 까지 하며, 기도를 마친 후 또한 일체히 도실에 돌아오되, 단원들이 각각 시계를 가져, 기도의 시작과 그침에 서로 시각이 어긋나지 않게 하였다.

- 장소는 각각 단원의 방위를 따라 정하되, 중앙봉으로 비롯하여 8방의 봉우리(峰巒)를 지정하고, 단기(團旗)인 팔괘기(八卦旗)를 기도 장소 주위에 세우게 하며, 기도식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향축과 청수를 진설하고 헌배와 심고를 올리며, 축문을 낭독한 다음 지정한 주문을 독송하였다¹³⁾.

법인기도 때 기도문으로 사용하였던 축문의 내용은 다음¹⁴⁾과 같다.

단원 모(某)는 삼가 재계하옵고 일심을 다하여 천지·부모·동포·법률 사은 전에 발원하옵나이다. 대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의 사용물이며 인도(人道)는 인의(仁義)가 주체요 권모 술수는 그 방편이니, 사람의 정신이 능히 만물을 지배하고 인의의 대도가 세상에 서게 되는 것은 이치의 당연함이거늘, 만근이래(輓近以來)로 그 주장이 위를 잃고 권모 사술이 세간에 분등하여 대도(大道)가 크게 어지러울새 본 단원 등은 위로 대중사의 성의를 받들고 아래로 일반 동지의 결속을 견고히 하여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기를 성심 발원하오니 복원(伏願) 사은이시여, 일체히 감응하시와 무궁

11) 마음과 몸을 가지런히 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또 부정한 일을 가까이 아니함.

12) 제관이 된 사람이 재계하는 일.

13) 「교사」, 앞의 책, 1053-1054쪽.

14) 「불법연구회 창건사」, 앞의 책, 271쪽.

한 위력과 한없는 자비로써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인기도 전 기간을 통하여 대종사는 단원들에게 시계를 주어 기도의 시작과 그침에 서로 시각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등, 단원들이 10일에 한 번씩 있는 정례기도와 10일 동안의 치재에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도록 지도하였다.

기도 시간에 늦고 치재에 정성스럽지 못했던 한 제자가 정신이 혼미하고 사지가 무력하며 얼굴 빛이 갑자기 변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 단원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대신하여 시간 어긋나고 10일간 치재에 정성스럽지 못한 죄를 백배 사죄하도록 하여 그 위기를 극복했던 일화¹⁵⁾는 대종사가 단원들이 얼마나 기도와 치재에 전일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임하도록 지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단편이다.

(3) 백지혈인(白指血印)의 법인성사(法認聖事)

원기 4년(1919·己未) 3월 26일(음)에 시작한 기도가 12번째가 되던 7월 16일(음)에 대종사는 단원들에게 기도 정성을 더욱 독려하며, 사무여한(死無餘恨)의 기도를 명하게 된다¹⁶⁾.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해 온 정성은 심히 장한 바 있으나, 나의 증험하는 바로는 아직도 천의(天意)를 움직이는 데는 그 거리가 먼 듯하니, 이는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사념(私念)이 남아 있는 연고라, 그대들이 사실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고 할진대, 그대들의 몸이 죽어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없이 그 일을 실행하겠는가」

이에 단원들은 비장한 태도를 보이다가 곧 일제히 희생하기로 고백하고, 10일간 치재를 더한 후, 다음 기도일(7월 26일)을 최후 희생일로 정하고, 그 날 기도 장소에 가서 일제히 자결하기로 약속하였다.

7월 26일(음)에, 9인은 모두 만면(滿面)한 희색으로 시간 전에 일제히 도실에 모이는데, 대종사, 찬탄함을 마지 아니하였다. 밤 8시가 되매, 대종사, 청수를 도실 중앙에 진설케 하고, 각자 가지고 온 단도를 청수상 위에 나열케 한 후, 일제히 「사무여한」이라는 최후 증서를 써서 각각 백지장(白指章)을 찍어 상(床)위에 올리고, 결사(決死)의 뜻으로 엎드려 심고(伏地心告)하게 하였다. 대종사, 증서를 살펴 보니, 백지장들이 곧 혈인(血印)으로 변하였는지라, 이를 들어 단원들에게 보이며 「이것은 그대들의 일심에서 나타난 증거라」 하고, 곧 불살라 하늘에 고(燒火告天)한 후 「바로 모든 행장을 차리어 기도 장소으로 가라」 하였다.

대종사, 한참 후에 돌연히 큰 소리로 「내가 한 말 더 부탁할 바가 있으니 속히 도실로 돌아오라」 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 공사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 부터 비롯하였다.」 고 하였다.

15) 위의 책, 271-272쪽.

16) 「교사」, 앞의 책, 1054쪽.

11시가 지난 뒤, 대중사, 다시 일제히 중앙봉에 올라가 기도를 마치고 오라 한 후, 돌아온 단원들에게 법호(法號)와 법명(法名)을 주며 「그대들의 전 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世界公名)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하니, 이것이 거룩한 백지 혈인(白指血印)의 법인 성사(法認聖事)였다. …(중략)… 그 후로도 단원의 기도는 여전히 계속하여 모든 절차에 조금도 해이함이 없더니, 그 해 10월, 대중사의 명에 의하여 드디어 해재(解齋)하였다¹⁷⁾.

3.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

(1) 정법 회상의 법계 인증

원기 원년 1916년은 대중사의 대각(大覺)으로 후천 시대에 정신개혁을 주도할 주세 회상이 태동하는 기원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해인 1916년에 현대 과학 발전에 큰 기초가 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물질개혁은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이룩되는 것이니,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발표는 물질개혁의 태동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사는 대각후 당시의 시국을 살펴 보고, 그 지도 강령을 「물질이 개혁(開關)되니 정신을 개혁하자」는 표어로 밝혔는데, 이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이다.

원기 4년(1919년) 3월 대중사는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요」라 하며,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에 감동이 있게 하여 보라」하였다.

이는 원불교 개교 표어에서 밝혀진 개교 정신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인기도는 원불교의 개교 정신의 발현이었던 것이다.

또 하나 법인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정법 건설에 대한 내용이다. 법인기도 기도문인 축문에는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기를 성심 발원」하는 내용이 있다.

물질의 노예 생활로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대에 적합한 정법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법인기도를 통해 이러한 정법을 건설하겠다는 다짐과 발원을 간절하게 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법인기도 후에 정법회상 건설이 구체화 된다. 단원들이 올린 기도가 법계의 인증을 받은 후, 원기 4년 10월 6일 해제를 하면서 대중사는 「불법(佛法)에 대한 선언」¹⁸⁾을 한다.

17) 위의 책, 1055-1056쪽.

18) 「불법연구회 창건사」, 앞의 책, 276쪽.

「이제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부처님의 도덕이요, 후진을 잘 가르치자는 것도 또한 부처님의 도덕이니, 제군은 먼저 이 불법의 대의를 연구하여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인과보응(因果報應)의 이치를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후략)…」

이에 대중사는 사업 기관인 「저축조합」의 이름을 고쳐 「불법연구회 기성조합」이라 명칭하고, 그 외 모든 기록에도 일제히 불법의 명호를 쓰게 하였다.

그리고 원기 5년(1920) 4월에, 대중사는 봉래산에서 이러한 불법의 진리에 바탕하여 새 회상의 교강인 「인생의 요도 사은(四恩)·사요(四要)와 공부의 요도 삼강령(三綱頌)·팔조목(八條目)을 발표하고, 원기 9년(1924) 4월 29일 보광사에서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를 열어 종래의 기성 조합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불법연구회」라는 임시 교명으로 새 회상을 내외에 공개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법인기도는 회상창립 준비기인 원기 원년부터 원기 9년까지의 회상 준비 과정의 정점에 있다 할 것이다. 이 시기를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나누는 방식은 사건으로 볼 때, 대각이후 저축조합-방언공사-법인성사까지를 한 시기로, 교강을 마련하고 회상의 창립 인연을 만나고, 회상 공개의 구체적인 장소를 물색하다 원기 9년 익산에 불법연구회를 열기까지의 시기이다.

이를 대중사 주재(主宰) 장소로 볼 때, 영산 시기와 변산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교명 변천으로 볼 때, 「저축조합」 시기와 「불법연구회기성조합」 시기로도 나눌 수 있다. 그 정점에 바로 법인기도가 있으며, 그 나누는 분기점이 바로 「법인기도 해제식」이며, 동시에 「불법에 대한 선언」을 했던 원기 4년(1919) 10월 6일(음)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는 한마디로 「정법 회상의 법계 인증」이라 하겠다. 법계의 인증을 받은 정법 회상이 출현하게 된 극적인 순간이다.

(2) 법인정신(法認精神)의 핵심, ‘지공무사(至公無私)’

‘법인(法認)’이란 말은 법계(法界)의 인증을 뜻한다. 아홉분 대선진의 그 크신 희생정신이 한 큰 치성으로 영키어서 음부(陰府) 곧 허공법계로부터 회상 창립의 인증을 받게 된 그것을 뜻하는 것이다. 법인성사(法認聖事)가 가진 첫째요 또 전부인 의미는 다름 아닌 ‘법인’ 그 이름에 있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법인성사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바로 법인정신이다. 무엇을 일러 법인정신이라 할까? 법인정신의 핵심은 바로 ‘지공무사(至公無私)’다. 법인기도 전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지공무사의 정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아니 회상 창립의 전 과정에 그 정신이 남아있으나 법인기도를 통해 그 흐름의 절정을 이루며, 법인성사로 그 극치를 이루고 있다.

원기 4년(1919·己未) 3월 26일에 시작한 기도가 12번째가 되던 7월 16일에, 대중사는 단

19) 이공전, 「법인절의 의의와 그 유래」, (『원불교개교반백년 기념문총』, 원불교출판사, 1971), 636쪽.

원들의 기도가 아직도 천의(天意)를 움직이는 데는 거리가 멀다 하고, 그것은 단원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떠한 사념(私念)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리고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조금도 여한없이 몸의 죽음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단원들은 이에 응하게 된다²⁰⁾.

단원들의 기도가 천의를 움직이지 못한 것은 단원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사념(私念) 때문이었다. 대종사는 단원들의 이러한 사념(私念)을 제거하고 오직 공(公)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단원들을 정신 통일시키기 위하여, 단원들에게 몸의 죽음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이는 「만일 육신 희생에 대하여 호리(毫釐)라도 불만한 생각이 심중에 끼어 있다면 비록 열 번 죽어서 정성을 바친다 할지라도 천지 신명은 이에 감동하지 않을지니…」²¹⁾ 라는 대종사의 말씀 속에서도 드러난다 하겠다.

10일간의 치재 후, 기도 장소에 가서 일제히 자결하기로 약속한 7월 26일(음)에, 9인은 모두 만면(滿面)한 희색으로 시간 전에 일제히 도실에 모이게 된다. 어떠한 사람이나 죽음을 앞두고는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여 그 표정이 밝기가 어려운데, 어찌하여 단원들은 죽음을 앞두고도 그렇게 기쁘하는 얼굴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대종사와 단원들의 대화²²⁾에서 잘 나타난다.

「제군들이 비록 공사를 위한 정성이 지극하나 누구나 물론하고 육신 희생을 당할 때는 조금이라도 슬픈 마음이 있는 것이거늘 이제 제군의 기상을 살펴본즉 모두 희색이 만면하였으니 이 희생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즐거움까지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누구나 물론하고 조만간 다 있는 것이로되 시방 세계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천만 인 중 가장 있기 어려운 바이며, 또는 저희 등이 본래 종사주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평생에 궁촌 농민으로 그 사상이 항상 한 가정에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이거늘 이제 저희 등 심중에 시방 세계를 일가(一家)로 보는 넓은 생각을 얻게 되었으니 그 사상 발전에 어찌 큰 영광이 아니며, 또는 저희 등의 희생한 공덕으로 만약 시방 세계 중생이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된다면 저희 등에 있어서는 얼마나 큰 사업이 되겠습니까. 저희 등이 비록 영혼 세계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금세에서 하고 온 일을 기억한다면 항상 장쾌(壯快)한 마음이 없지 않으리라고 추측됩니다. 그리하여,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기운이 활발하여 자연중 그 희색이 외면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는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는 사상과 자유 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써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 하자」는 무아봉공(無我奉公)의 정신으로써, 사(私) 없이 지극히 공(公)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무친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정신

20) 「교사」, 앞의 책, 1054쪽.

21) 「불법연구회 창건사」, 앞의 책, 273쪽.

22) 위의 책, 274쪽.

에서 나온 것이다.

백지혈인(白指血認)의 법인성사(法認聖事)가 이루어진 후, 대종사는 단원들에게 다음²³⁾을 당부한다.

「제군들의 마음은 천지 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음부공사(陰府公事)가 이제 판결이 났으니 금일에제군들의 생명을 기어이 희생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성공은 오늘로부터 비롯하였다.

제군의 몸은 곧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라 이 앞으로 장차 영원히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비록 천신 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이 때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또는 가정 애착과 오욕의 환경을 당할 때에는 오직 금일에 죽은 셈만 잡는다면 다시는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지니 그 끝림이 없는 순일한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전무(專務)하여 길이 중생 제도에 노력하라.」

이는 단원들의 사(私) 없는 기도로 천지 신명이 감응하였으므로, 몸의 죽음을 명했던 것은 사념(私念)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었기에 생명의 희생 대신에 그러한 사(私) 없는 마음으로 공(公)을 위하여 중생 제도에 전념하라는 뜻인 것이다.

이러한 법인기도에 대하여 『불법연구회 창건사』에서 정산 종사는 「대종사의 위의 행사(법인기도)는 본회의 기초적 인물을 양성할 때, 사(私)를 제거하고 공(公)을 세우는데 그 결심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²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법인정신의 핵심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정신인 것이다.

(3) 법인정신의 계승

1) 사무여한(死無餘恨) 무아봉공(無我奉公)

어느 단체나 그 단체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 단체 구성원들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우리 교단에서 살아나야 할 정신은 어떤 정신인가? 그것은 교단 초창기의 정신, 곧 창립정신이다. 좌산 종법사는 교단 창립사(創立史)에 맥맥히 담겨 흐르는 창립정신으로 절대신봉(絕對信奉)·일심합력(一心合力)·근검저축(勤儉貯蓄)·이소성대(以小成大)·무아봉공(無我奉公) 등의 정신을 들었다. 이러한 창립정신 중에서도 무엇보다 사무여한의 무아봉공 정신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법인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인정신은 교단이 위기에 임할 때면 이 정신이 새삼스럽게 계발된다. 제 1대 성업봉찬회 당시 속칭 삼중당(三中堂) 사건과 남한강 사건 등과 교단의 어려운 시련이 있을때면 「창립정신에 돌아가자」 「법인정신을 다시 찾자」는 등의 저력으로 단합된 정신이 계발되어 마침내 사무여한(死無餘恨)의 열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²⁵⁾.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교단 교화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화부 주관으로

23) 위의 책, 275쪽.

24) 위의 책, 276쪽.

25) 「법인성사와 순교정신」, 앞의 책, 162쪽.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영산성지 법인기도와, 원불교 청년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법인기도 등은 법인정신을 계승하는 뜻 깊은 행사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기도를 통해서 교단에 새롭게 법인정신이 살아나 생명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해 본다.

또한 각 교당과 기관에서 공사(公事)에 전력하는 출가·재가의 전교도가 사(私) 없이 지극히 공(公)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문화가 교단에 형성된다면, 이는 참다운 법인정신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교단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먼저 자각한 사람들의 실천으로 그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십인일심(十人一心) 세계일가(世界一家)²⁶⁾

법인기도가 단장인 대중사의 지도 아래, 9인 단원들의 합력으로 이루어진 행사라 볼 때, 교단의 비릇이요 근간인 십인일단의 교화단에서 이러한 법인정신이 계승되어야 한다. 법인기도는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다. 시방(十方)을 응하는 십인(十人)이 한 마음이 된 십인일심(十人一心)의 기도였다. 십인은 하늘을 응하는 대중사와 땅을 응하는 정산종사를 비롯 팔방을 응하는 팔인 단원이 각각 한 방위씩을 책임지기로 작정하고 올린 기도였다. 또한 법인기도는 우주만유 허공법계의 일체생령을 빠짐없이 책임지고자 시방일가(十方一家)를 염원한 기도였다. 이는 또한 교화단의 사명이자 역할이 된다.

대중사는 원기 2년 단 조직을 한 후 단조직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을 훈련시켰으며, 공부와 사업을 병진했다. 그 전통은 회상 창립기의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출가·재가 전교도는 교화단의 단장과 중앙이 되고 단원의 책임과 의무를 맡고 있다. 각 단원들이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²⁷⁾」 하여 각자 교화·교육·자선의 일터에서 맡겨진 모든 중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공시키리라는 간절한 염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인정신의 중요한 계승이 될 것이다. 지공무사의 정신적 흐름이 개인적 계승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집단적·조직적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교화단을 통해서 법인정신이 면면히 살아 전승됨과 동시에 그 정신이 단장을 통하여 단원들에게 전해지고, 다시 단원들이 단장이 되어 아래 단원들에게 전해져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법인기도와 원불교 신앙

(1) 원불교 신앙

신앙(信仰)이란 믿고 받드는 일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부터 복락(福樂)을 구하기 위해서다.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 복락을 구하는 것이다.

원불교 신앙은 「일원상(一圓相)의 신앙²⁸⁾」이며, 「인과 보응(因果報應)의 신앙(信仰)

26) 『교리실천도해』, 「세계평화의 3대요소」 중 3대 요소는 일원주의의 사상, 공화제도의 체제, 십인일단의 교화이며, 십인일심 시방일가를 통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구상되어 있다.

27) 대중경, 서품 13장

28) 「정전」, 일원상의 신앙.

)²⁹⁾」이다.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는³⁰⁾」 인과 보응의 진리에 바탕한 일원상의 신앙을 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 보응의 진리에 바탕하였기에 일원상의 신앙은 불공(佛供)의 실천을 통해서 복락을 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원상의 신앙 방법을 대중사는 다음³¹⁾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몰아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복락을 구하는 신앙의 대상이 일원상인 바, 이 일원상의 내역은 우주 만유이다. 그래서 우주 만유에 불공을 함으로써 복락을 장만하는데, 이는 인과 보응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다.

불공은 복락을 초래하도록 함이 실천의 목적이며 불공법의 실천은 그 자체가 복락을 초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은 인생의 요도 사은(四恩)·사요(四要)의 실천으로 행하게 하였다³²⁾. 대중사는 이를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으로 실천 강령을 밝히었다³³⁾.

그런데, 이러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울러야 할 것이 있다. 정산 종사는 「실지 불공(實地佛供)은 천지 만물의 양계에 하는 것이요, 진리 불공(眞理佛供)은 허공 법계의 음계에 하는 것이니 이를 아울러야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원만히 되리라³⁴⁾.」고 하였다.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을 함께 할 때, 원만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는 것이다. 대중사도 「불공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은 당처에 직접 올리는 실지 불공이요, 들은 형상 없는 허공 법계를 통하여 법신불께 올리는 진리 불공이라,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불공을 때와 곳과 일을 따라 적당히 활용하되 그 원하는 일이 성공되도록까지 정성을 계속하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루지 못 할 일은 없으리라³⁵⁾.」고 하여, 불공을 할 때에는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을 함께 하라 하였다.

요컨대, 원불교 신앙은 인과 보응의 진리에 바탕한 일원상의 신앙으로, 불공을 통하여 복

29) 위의 책, 교리도.

30) 「대중경」, 인과품1장.

31) 「대중경」, 교의품 4장.

32) 한중만, 『원불교 신앙론』, (이리: 원불교출판사, 1995), 357쪽.

33) 「정전」, 교리도.

34) 「법문과 일화」, 일원의 진리 15장, (『한 울안 한 이치에』, 원불교출판사, 1982),

35) 「대중경」, 교의품16.

락을 장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불공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강령 잡을 수 있으며, 이 불공은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을 아울러야 원만히 되어진다.

(2) 법인기도와 원불교 신앙

법인기도에서는 원불교 신앙의 어떠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법인기도에서는 어떠한 불공이 나타나느냐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하겠다. 왜냐하면 원불교 신앙은 불공으로 실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은 실지 불공과 진리 불공으로 되어지므로 이 두 불공의 측면에서 법인기도를 조명해 보자.

1) 법인기도와 진리불공

법인기도의 「기도」 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법인기도는 진리 불공의 실천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법인기도는 개인의 행복을 구하는 사(私)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창생의 행복을 구하는 공(公)을 위한 기도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기도였고, 정법이 세상에 드러나서 모든 창생이 도덕의 구원만 받는다면 사무여한(死無餘恨)하겠다는 기도이었던 것이다.

또한 법인기도는 진리 불공의 방법을 철저히 실행한 기도이었다.

진리 불공의 방법에 대해 대중사는 「몸과 마음을 재계(齋戒)하고 법신불을 향하여 각기 서원을 세운 후 일체 사념을 제거하고, 선정(禪定)에 들든지 또는 염불과 송경을 하든지 혹은 주문 등을 외어 일심으로 정성을 올리면 결국 소원을 이루은 동시에 큰 위력이 나타나 악도 중생을 제도할 능력과 백천 사마라도 귀순시킬 능력까지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기로 하면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다 사무쳐야 된다³⁶⁾」 고 했다.

이러한 진리 불공의 실천이 법인기도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다. 법인기도는 축문을 낭독한 다음 지정한 주문을 독송케하여 일체 사념(私念)을 제거하고 일심을 모으게 했다. 또한 7월 16일 부터는 단원들의 마음에 사념이 남아 있어 천의(天意)의 감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념을 제거하여 천지의 감응을 받기 위해 사무여한(死無餘恨)으로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에 임하였기에 법인의 거룩한 성사(聖事)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일백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 정성이 다 사무쳐서 큰 위력을 나뉘진 진리 불공이었던 것이다.

2) 법인기도와 실지불공

실지 불공의 측면은 법인기도 자체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법인기도를 전후로 한 회상 창립 과정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법인기도 전에 이루어진 방언공사는 일심 합력으로써 영육 쌍전의 실지 표본을 보이고, 새 회상 창립의 경제적 기초를 세우는 실지 불공의 일대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방언공사 시작전에 올린 서약서의 「마음은 한 사문(師門)에 바치고 몸을 공중사(公衆事)에 다하여 영원한 일생을 이에 결정하옵고 먼저 방언공사에 착수하오니」 라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듯이, 방언공사는 공(公)을 위하여 몸을 바치는 실지 불공의 행사이었다.

36) 위의 책, 교의품16장.

방언공사 후에 이러한 공(公)을 위하는 한 마음을 그대로 진리 불공으로 이은 것이 법인 기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인기도는 법인기도만의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회상 창립 과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법인기도의 축문에는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기를 성심 발원」 하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발원은 대종사가 원기 4년 10월 6일 법인기도 해제 후에 한 「불법(佛法)에 대한 선언」 과, 원기 5년 4월의 「교강 선포」 그리고 원기 9년 4월 29일에 있는 「불법연구회 창립 총회」 의 행사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법 건설을 위한 실지 불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상 창립 과정의 법인기도 전후 맥락으로 볼 때, 법인기도는 실지 불공을 아우른 진리 불공의 원불교 신앙 행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논자는 법인기도의 전개 과정을 되짚아가며, 그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법인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기도를 원불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먼저,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를 밝혀감에 있어, 법인기도를 하나의 역사적 사건 중심이 아닌 회상 창립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회상 창립 준비기를 대종사 대각 이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까지로 볼 때, 법인기도는 회상 창립 과정 -십인일단 단조직, 저축 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 불법에 대한 선언, 교강 선포,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등- 에서 그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법인기도는 회상 창립의 흐름속에서 정법회상을 법계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이었다. 이로부터 우리의 성공을 자신하게 되었고, 정법회상 구현의 구체적인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법인기도의 법인성사는 지극한 법인정신에서 나왔다. 그 법인정신의 핵심은 창생을 위해서는 기쁘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정신, 사(私) 없이 지극히 공(公)을 위해 바치는 정신, 바로 ‘지공무사’ 의 정신이었다.

다음으로, 법인기도를 원불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는 바, 법인기도는 회상 창립의 과정속에서 볼 때 실지 불공을 아우른 진리 불공의 원불교 신앙 행사였다. 법인기도는 시대에 적합한 정법을 이 세상에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 가는 세도 인심을 바로 잡기를 성심 발원하는 진리 불공이었으나, 법인기도를 전후한 ‘방언공사’ ‘불법에 대한 선언’ ‘교강 발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 등은 이러한 진리 불공의 염원을 실지로 구체화시켜 가는 실지 불공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교단 100주년이 이제 11년 남았다. 교단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교단 100주년을 기점으로 결복 교운을 힘차게 열어나갈 책임이 교단 100주년의 주역인 우리들에게 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정신이 새롭게 살아 나는 것이다. 바로 사무여한의 무아봉공 정신, 지공무사의 정

신이, 우리들이 신앙 수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법인정신을 어떻게 원불교의 신앙 속에 구체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법위단계별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특신급 단계에서 법인기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산 중사는 「특신은 무엇으로도 이 공부 이 사업과 바꾸지 않는 마음이며 이런 분이 많이 계시면 그 사람의 성공이고, 우리 교단의 성공이고, 세계의 성공이 된다.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구인제자를 만나지 못 하셨다면 이 회상을 못 펴셨을 것이다. 구인제자가 ‘이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에 도덕을 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혈인서천(血印誓天)을 한 것이 바로 정특(正特)이다. 둘째 급이지마는 이상 계급으로 오르는 밑자리이다。」 하며, 「정특에 오른 분들이 많으므로 대종사님은 이 나라에 오시어 성공을 하시었다.»³⁷⁾ 고 하였다. 법인성사를 이룬 후 「우리의 성공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한 대종사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수행 과정에서 실현해내자는 것이다. 천의 감동 · 창생 제도를 위한 법인기도를 통하여 지공무사의 법인정신을 체득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계로 흐르지 않는 사람」³⁸⁾ 이 되어 지공무사의 삶을 살자는 것이다.

다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 법인기도를 실천해 나가자. 교화단을 통해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자. 결의가 된 교화단부터 단장이 중심이 되어 십인(十人)이 일심(一心)이 되는 기도를 전개해 나가자. 각자 처한 곳의 현안에서부터 사회 국가 세계 인류의 문제 중에 하나를 교화단의 과제로 삼아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십인일심의 기도를 올리자. 그리고 이를 차츰 교단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자. 교화단이 형식 조직이나 친목 조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법인기도를 통해 전 단원이 일심이 되어 교화단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는 것이다. 개개인의 지공무사 정신이 서로 중첩되면 그 효과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으로 나타나 각 지역과 교단의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커다란 원동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37) 「대산중법사법문집3」, 제5편 법위, 71장, 304쪽

38) 「정전」, 앞의 책, 90쪽

발표2 - 법인기도의 역사적 의의와 원불교 신앙

발표자 - 장진수 전홍진

▶ 김현 - 과학적 해석이 필요하다. 과학적 해석에 치중하다 보면 신앙적 해석이 약해질 수 있지만 확실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역사적 토대 현실에 바탕한 신앙이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을 물질개벽의 태동으로 본 관점, 법인기도 개교정신의 재천명이라는 점, 교화훈련부의 기도운동이 교단적 최초운동이라는 점은 해석상 오류가 될 수 있다.

기도의의를 돌아보면 제자들에 대한 순일무사한 정신에 다다르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 개벽을 알리는 상두소리는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시대의 도래한다는 것이다. 기도의 정신에 나타난 의미는 각자의 몸과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창생제도의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 준 것이다. 기도문의 목적도 지공무사한 사람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법회상을 건설한 후 나날이 쇠퇴해가는 세도인심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충실한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계승의 문제 법인정신의 재현으로 우리가 해야 할일은 다시 혈인을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감응을 다시 얻자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 창생을 구원하겠다는 무아봉공이 중요하다. 무아보다 봉공이 필요하다. 법계인증은 이미 되었다. 다시 살리노니 죽은 폭 잡고 창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 이 시대에 인도정의가 바로서는 세상, 법인보다 세상에 인증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 신명국 - 전문적인 학술적 토론은 아니지만 역사적 의의를 요약하면 정법회상의 법계인증과 그것을 지공무사하게 계승하자는 것이다. 진리불공, 실지불공을 우리도 아우르자는 것, 무아봉공, 일심합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발표문을 보면 역사적 의의에 대한 그동안 검토가 부족하다. 창립정신 사무여한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과 차이가 있고 지공무사로 새롭게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 법인기도를 통해 신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승 할 것인지에 대한 그동안의 문헌검토가 없는 부분이 아쉽다. 법인기도의 배경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새로운 회상을 건설할 때 최초의 시련이 직면했을 때 시작되었고, 법인기도를 통해 그것을 극복했다. 창건사를 보면 3.1 독립 만세운동이 영광음내에서도 만세 시위가 있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내용인데 대중사께서 1919년 3월 영광경찰서에 다녀오신 것으로 나타난다. 방언공사 중에 나타난 이적, 위조지패, 자금조성경위 등이었을것이다. 방언공사를 마칠 무렵 기도를 하였고, 기도를 마치고 변산에 다녀오시고, 7월부터 정산종사를 보내시고, 12월에 변산으로 완전히 입산 원기 4년에는 영산의 시련을 겪다. 더 이상 조직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변산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색을 걸치면서 원기 9년 창립총회를 하게 된다. 새로운 교단 시련극복 법인기도였고 오만년 대운의 확신을 갖게 된것도 법인기도이다. 원불교 교단의 사무여한 정신이다.

▶ 유성태 - 법인성사에 있어서 1. 언어 사무여한, 일심합력, 무아봉공 모두 일제시대에 상요되었던 용어이다. 원불교적 용어로 순환시킬 수 없는가?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창립정신에 대한 교단적 용어 창출의 문제 2. 의의- 혈인을 통해 나타난 순교정신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3. 원불교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데 신비와 이적이 없는 편인데, 원불교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신비적 영성의 세계에서 필요하다.

▶ 박용덕- 백일되는 날이 7월 6일이다. 법인기도를 일과적 행사로 해야 할것인가? 교단적 일있을때 결사운동으로 할것인가? 원불교의 정체성 확립,,, 원불교 수행법이고, 개개인이 거듭나는 날이다. 대중사님이 창생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가 안되니 죽어라 하셨다. 혈인에 집착하는것은 신비화 될 수밖에 없다. 대중사님 정신과 합일되는 개개인이 거듭나는날 법명을 주는 것은 사무여한, 무아봉공의 프로그램을 짜서 개개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법인정신의 의미이다. 11과목은 교육프로그램이다. 사무여한 무아봉공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전홍진 - 사무여한 무아봉공을 지공무사로 쓰고 싶었던 것은 자료를 보면서 사가 없어야 한다. 방언공사 때부터 작업을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공무사로 쓰고 싶었다.

법인기도에 대한 교단 의식 조사

(문화 창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남궁 문(원광대학교)

I. 서론

우리 교단에 4축 2재는 그 역사성과 의미에 있어서 고귀함이 존재하고 있다, 원불교 교도들은 4축2재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으며 교당에서는 4축 2재를 즈음하여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교화를 증진시키는 계기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축 2재 중 법인절을 교당 및 지역사회 문화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교도 및 교무님을 대상으로 법인절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법인절에 대한 문화를 더욱 계승함은 물론 법인절 문화를 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조사 방법

법인절 문화에 대한 교무와 교도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 항목으로는 1) 법인절 의미 인식, 2) 법인절 행사 참가 경험유무, 3) 4축2재별 중요도, 4) 교단 내·외의 법인절 문화, 5) 교당에서의 법인절 행사 내용, 6) 영산에서의 법인절 프로그램, 7) 9인 기도봉에서의 기도 경험, 8) 참여해 본 법인절 행사 중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 등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전국의 100개 교당을 선정하여 교무와 교당별 4명의 교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시기는 원기88년(2003년) 6월에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분석

2.1) 법인절 의미

법인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법인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법인절에 대한 의미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잘 알고 있다	205	73.0
알고 있는 편이다	70	24.9
그저 그럴다	6	2.1
전 체 합 계	281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잘 알고 있다	75	92.6	130	65.0
알고 있는 편이다	6	7.4	64	32.0
그저 그럴다	0	0.0	6	3.0
전 체 합 계	81	100.0	200	100.0

2.2) 법인절 참가 경험

또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인절 행사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었다.

표2) 법인절 기념행사에 참가 경험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예	274	97.5
아니오	7	2.5
전 체 합 계	281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예	80	98.8	194	97.0
아니오	1	1.2	6	3.0
전 체 합 계	81	100.0	200	100.0

2.3) 4축 2제 인지도

원불교의 4축 2제 중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 결과 교무, 교도 모두 제일 중요한 것이 대각개교절, 그 다음으로 법인절, 육일대제 등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3) 4축 2제의 인지도 순서

▶ 전 체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신 정 절	10 (3.5 %)	2 (0.7 %)	12 (4.3 %)	51 (18.1 %)	89 (31.8 %)	117 (41.5 %)
법 인 절	9 (3.2 %)	184 (65.2 %)	63 (22.3 %)	14 (5.0 %)	13 (4.6 %)	1 (0.4 %)
명 절 대 재	1 (0.4 %)	1 (0.4 %)	20 (7.1 %)	106 (37.6 %)	90 (32.1 %)	62 (22.0 %)
대각개교절	258 (91.5 %)	19 (6.7 %)	1 (0.4 %)	2 (0.7 %)	1 (0.4 %)	0 (0.0 %)
육 일 대 재	3 (1.1 %)	65 (23.0 %)	150 (53.2 %)	43 (15.2 %)	13 (4.6 %)	6 (2.1 %)
석가탄신일	1 (0.4 %)	11 (3.9 %)	36 (12.8 %)	66 (23.4 %)	74 (26.4 %)	94 (33.6 %)
전 체 합 계	282	282	282	282	280	28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신 정 절	1 (1.2 %)	0 (0.0 %)	1 (1.2 %)	9 (4.5 %)	2 (1.0 %)	11 (5.5 %)
법 인 절	1 (1.2 %)	54 (66.7 %)	21 (25.9 %)	8 (4.0 %)	130 (64.7 %)	42 (20.9 %)
명 절 대 재	0 (0.0 %)	0 (0.0 %)	7 (8.6 %)	1 (0.5 %)	1 (0.5 %)	13 (6.5 %)
대각개교절	77 (95.1 %)	3 (3.7 %)	0 (0.0 %)	181 (90.0 %)	16 (8.0 %)	1 (0.5 %)
육 일 대 재	2 (2.5 %)	23 (28.4 %)	45 (55.6 %)	1 (0.5 %)	42 (20.9 %)	105 (52.2 %)
석가탄신일	0 (0.0 %)	1 (1.2 %)	7 (8.6 %)	1 (0.5 %)	10 (5.0 %)	29 (14.4 %)
전 체 합 계	81	81	81	201	201	201

2.4) 법인절 이미지

법인절하면 생각하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가장 강한 이미지로는 기도, 다음으로 선진님, 영산성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법인절 이미지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영산 성지	23	8.2
기 도	138	49.1
기 도 봉	21	7.5
선 진 님	92	32.7
기 타	7	2.5
전 체 합 계	281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영산 성지	4	5.0	19	9.5
기 도	42	52.5	96	47.8
기 도 봉	7	8.8	14	7.0
선 진 님	23	28.8	69	34.3
기 타	4	5.0	3	1.5
전 체 합 계	80	100.0	201	100.0

2.5) 교단 내 법인절 문화 우선 순위

법인절 행사에서 교단 내에서 실시하였으면 하는 문화 행사로는 교무님들의 경우는 1) 기도식, 2) 혈인기도 재현, 3) 촛불마음나누기 순으로 나타났고, 교도님들의 경우는 1) 기도식, 2) 혈인기도 재현, 3) 영산특별기도식, 4) 촛불마음나누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5) 교단 내 법인절 문화 우선순위

▶ 전 체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기 도 식	134 (47.9 %)	48 (17.3 %)	16 (5.8 %)
촛불 마음나누기	17 (6.1 %)	68 (24.5 %)	50 (18.1 %)
영산 특별기도식	21 (7.5 %)	55 (19.9 %)	42 (15.2 %)
혈인기도 재현	95 (33.9 %)	52 (18.8 %)	41 (14.9 %)
사회교화의 실천	9 (3.2 %)	25 (9.0 %)	41 (14.9 %)
사랑기도 릴레이	2 (0.7 %)	9 (3.2 %)	23 (8.3 %)
은혜의법문나누기	2 (0.7 %)	20 (7.2 %)	63 (22.8 %)
전 체 합 계	280	277	276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기 도 식	36 (44.4 %)	16 (20.3 %)	8 (10.1 %)	98 (49.2 %)	32 (16.2 %)	8 (4.1 %)
촛불 마음나누기	6 (7.4 %)	16 (20.3 %)	20 (25.3 %)	11 (5.5 %)	52 (26.3 %)	30 (15.2 %)
영산 특별기도식	5 (6.2 %)	14 (17.7 %)	12 (15.2 %)	16 (8.0 %)	41 (20.7 %)	30 (15.2 %)
혈인기도 재현	31 (38.3 %)	18 (22.8 %)	12 (15.2 %)	64 (32.2 %)	34 (17.2 %)	29 (14.7 %)
사회교화의 실천	2 (2.5 %)	7 (8.9 %)	16 (20.3 %)	7 (3.5 %)	18 (9.1 %)	25 (12.7 %)
사랑기도 릴레이	1 (1.2 %)	7 (8.9 %)	4 (5.1 %)	1 (0.5 %)	2 (1.0 %)	19 (9.6 %)
은혜의법문나누기	0 (0.0 %)	1 (1.3 %)	7 (8.9 %)	2 (1.0 %)	19 (9.6 %)	56 (28.4 %)
전 체 합 계	81	79	79	199	198	197

2.6) 법인절 문화이 지역사회 연계

법인절 문화를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적으로는 촛불축제(31.3%), 기도운동(23.7%), 보은봉공운동(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6) 법인절의 지역사회 문화화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촛불축제	87	31.3
보은봉공운동	62	22.3
기도운동	66	23.7
문화사업	28	10.1
마음나누기운동	35	12.6
전 체 합 계	278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촛불축제	34	42.0	53	26.9
보은봉공운동	10	12.3	52	26.4
기도운동	27	33.3	39	19.8
문화사업	7	8.6	21	10.7
마음나누기운동	3	3.7	32	16.2
전 체 합 계	81	100.0	197	100.0

2.7) 법인절 계승 노력 방법

또한, 법인절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기도식의 활성화, 그 다음으로는 은혜와 감사운동 전개 그리고 영산에서의 기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으로 나타났다.

표7) 법인절을 계승시키기 위한 노력 방법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은혜와감사운동의전개	73	26.2
특별기도식 활성화	101	36.2
사회보은활동의 전개	44	15.8
영산에서의기도프로그램의 개발및실행	61	21.9
전 체 합 계	279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은혜와감사운동의전개	9	11.3	64	32.2
특별기도식 활성화	34	42.5	67	33.7
사회보은활동의 전개	12	15.0	32	16.1
영산에서의 기도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25	31.3	36	18.1
전 체 합 계	80	100.0	199	100.0

2.8) 법인절에 교도가 해야 할 일

법인절에 즈음하여 원불교 교도들이 해야 할 일로서는 기도, 법인절 행사 참여, 봉공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8) 법인절을 기념하기 위해 원불교 교도들이 해야 할 일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기 도	135	48.9
법인절 기념식 참여	90	32.6
지역사회 보은봉공활동	39	14.1
교 리 공 부	12	4.3
전 체 합 계	276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기 도	49	62.8	86	43.4
법인절 기념식 참여	18	23.1	72	36.4
지역사회 보은봉사활동	10	12.8	29	14.6
교리 공부	1	1.3	11	5.6
전 체 합 계	78	100.0	198	100.0

2.9) 교당의 법인절 행사

교당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법인절 행사로는 대부분 법인절 특별기도와 법인절 의식이 대부분 이었고 축하행사를 한다는 곳이 29%, 그리고 은혜 및 나눔행사를 하는 곳은 7.8%였다.

표9) 교당에서 실시하는 법인절 행사

▶ 전 체

항 목	행 사	행 사 안 함	전 체 합 계
법인절 특별기도	232 (82.3 %)	50 (17.7 %)	282 (100 %)
법인절 의 식	186 (66.0 %)	96 (34.0 %)	282 (100 %)
법인절 축하행사	82 (29.1 %)	200 (70.9 %)	282 (100 %)
교도간 감사와 은혜나눔행사	22 (7.8 %)	260 (92.2 %)	282 (100 %)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행 사	행 사 안 함	행 사	행 사 안 함
법인절 특별기도	69 (85.2 %)	12 (14.8 %)	163 (81.1 %)	38 (18.9 %)
법인절 의 식	62 (76.5 %)	19 (23.5 %)	124 (61.7 %)	77 (38.3 %)
법인절 축하행사	17 (21.0 %)	64 (79.0 %)	65 (32.3 %)	136 (67.7 %)
교도간 감사와 은혜나눔행사	5 (6.2 %)	76 (93.8 %)	17 (8.5 %)	184 (91.5 %)
기 타	2 (2.5 %)		2 (1.0 %)	

2.10) 법인절 특별기도 방법

법인절기도 방법으로는 일반기도 방식(45.3%)과 9인 선진님들이 하셨던 기도 방식(54.7%)으로 나타나, 많은 교당들이 법인절에는 9인 선진님들의 기도 방식에 따라 기도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교당에서 법인절 특별기도방법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일반기도방식	124	45.3
9인선진님들의 기도방식	150	54.7
전 체 합 계	274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일반기도방식	34	43.0	90	46.2
9인선진님들의 기도방식	45	57.0	105	53.8
전 체 합 계	79	100.0	195	100.0

3) 영산 특별기도 프로그램

3.1) 영산 특별기도 프로그램 참가의향

법인절에 즈음하여 영산에서 특별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때 참가할 의향에 대한 질문 결과 전체적으로는 49.6%가 참가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였고, 교무님은 51.3%, 교도님들은 49.0%가 참가를 하겠다고 응답을 하였다.

표11) 법인절에 즈음하여 영산에서 특별 기도 프로그램시 참가 의향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적극 참여	49	17.6
참 여	89	32.0
생각해보겠다	83	29.9
프로그램에 따라 생각해보겠다	48	17.3
참가하지 않겠다	9	3.2
전 체 합 계	278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적극 참여	15	18.8	34	17.2
참 여	26	32.5	63	31.8
생각해보겠다	16	20.0	67	33.8
프로그램에 따라 생각해보겠다	19	23.8	29	14.6
참가하지 않겠다	4	5.0	5	2.5
전 체 합 계	80	100.0	198	100.0

3.2) 영산 기도 프로그램 참여형태

법인절 특별 기도프로그램을 영산에서 실시한다고 할 때 참여 형태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당교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한 경우가 17.8%로 나타났다. 교도들의 경우는 교당교도님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경우가 65.3%,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싶은 경우가 23.6%로 나타났다.

표12) 법인절 특별 기도 프로그램을 영산 성지에서 실시한다면 그 참여 형태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훈 자 서	11	4.0
가족과 함께	49	17.8
교당교도들과 함께	185	67.3
교구 단위로	30	10.9
전 체 합 계	275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훈 자 서	6	7.9	6	7.9
가족과 함께	2	2.6	2	2.6
교당교도들과 함께	55	72.4	55	72.4
교구 단위로	13	17.1	13	17.1
전 체 합 계	76	100.0	76	100.0

3.3) 영산 기도 프로그램 기간

법인절 특별기도를 영산에서 계획을 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는 1박2일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법인절 특별 기도 행사를 영산성지에서 계획을 한다면 그 기간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하 루	49	17.9
1박 2일	178	65.0
2박 3일	45	16.4
기 타	2	0.7
전 체 합 계	274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하 루	15	19.2	34	17.3
1박 2일	49	62.8	129	65.8
2박 3일	13	16.7	32	16.3
기 타	1	1.3	1	0.5
전 체 합 계	78	100.0	196	100.0

3.4) 영산 기도식 프로그램

영산의 특별기도식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적절한 것으로는 1) 대중사님과 선진님들의 추모담, 2) 산상기도, 3) 백지혈인 마음세우기, 4) 성지순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14) 기도식 프로그램의 내용

▶ 전 체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대중사(선진)님 추모담	94 (34.1 %)	26 (9.5 %)	36 (13.4 %)
산상 기도	57 (20.7 %)	48 (17.5 %)	34 (12.6 %)
108 배	11 (4.0 %)	18 (6.6 %)	17 (6.3 %)
성지 순례	28 (10.1 %)	60 (21.9 %)	31 (11.5 %)
신앙 대법회	13 (4.7 %)	23 (8.4 %)	18 (6.7 %)
마음 나눔시간	3 (1.1 %)	9 (3.3 %)	20 (7.4 %)
특별 강연	5 (1.8 %)	20 (7.3 %)	26 (9.7 %)
백지혈인 마음세우기	52 (18.8 %)	46 (16.8 %)	57 (21.2 %)
서원문 작성	13 (4.7 %)	24 (8.8 %)	29 (10.8 %)
기 타	0 (0.0 %)	0 (0.0 %)	1 (0.4 %)
전 체 합 계	276	276	269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중사(선진)님 추모담	15 (19.2 %)	7 (9.0 %)	11 (14.7 %)	79 (39.9 %)	19 (9.7 %)	25 (12.9 %)
산상 기도	21 (26.9 %)	16 (20.5 %)	15 (20.0 %)	36 (18.2 %)	32 (16.3 %)	19 (9.8 %)
108 배	3 (3.8 %)	3 (3.8 %)	8 (10.7 %)	8 (4.0 %)	15 (7.7 %)	9 (4.6 %)
성지 순례	3 (3.8 %)	18 (23.1 %)	5 (6.7 %)	25 (12.6 %)	42 (21.4 %)	26 (13.4 %)
신앙 대법회	9 (11.5 %)	9 (11.5 %)	5 (6.7 %)	4 (2.0 %)	14 (7.1 %)	13 (6.7 %)
마음 나눔시간	1 (1.3 %)	1 (1.3 %)	5 (6.7 %)	2 (1.0 %)	8 (4.1 %)	15 (7.7 %)
특별 강연	1 (1.3 %)	5 (6.4 %)	3 (4.0 %)	4 (2.0 %)	15 (7.7 %)	23 (11.9 %)
백지혈인 마음세우기	20 (25.6 %)	12 (15.4 %)	13 (17.3 %)	32 (16.2 %)	34 (17.3 %)	44 (22.7 %)
서원문 작성	5 (6.4 %)	7 (9.0 %)	9 (12.0 %)	8 (4.0 %)	17 (8.7 %)	20 (10.3 %)
기 타	0 (0.0 %)	0 (0.0 %)	1 (1.3 %)	0 (0.0 %)	0 (0.0 %)	0 (0.0 %)
전 체 합 계	78	78	75	198	196	194

3.5) 영산 기도 프로그램 성격

표15) 영산에서 기도식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의 성격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성 비율 (%)
의미를 살리되 간소화하여	68	24.6
철저하게 9인 선진님들의 기도처럼	61	22.1
시대· 환경에 맞게 변형해서	147	53.3
전 체 합 계	276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성수	구성 비율 (%)	구성수	구성 비율 (%)
의미를 살리되 간소화하여	15	19.2	53	26.8
철저하게 9인 선진님들의 기도처럼	25	32.1	36	18.2
시대·환경에 맞게 변형해서	38	48.7	109	55.1
전 체 합 계	78	100.0	198	100.0

4) 기도봉 기도 참가 경험

4-1) 기도봉 기도 경험

표16) 영산성지 9인 기도봉에서의 기도 경험

▶ 전 체

항 목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예	188	67.4
아니오	91	32.6
전 체 합 계	279	100.0

▶ 교무와 교도

항 목	교 무		교 도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구 성 수	구 성 비 율 (%)
예	77	96.3	111	55.8
아니오	3	3.8	88	44.2
전 체 합 계	80	100.0	199	100.0

5) 법인절 참가 경험

법인절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무·교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program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Program	
	교 무	교 도
촛불 서원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기도문 작성하기 .교당에 구인봉 만들어 각자 기도 .구인선진님 사진 활용(한지로 등 만들기) .남산에서 교도들과 일반자모, 유치원생들과 나레이션에 맞춰 기도식 거행 (매년행사로 뜻깊음) .기도복 착용과 법인등을 들고 모여 기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인기도 재현 .촛불의식과 함께 한 서원문 작성 .촛불 들고 단별로 모여 기도식하기 .촛불행진
기도봉 에서 기도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인선진님의 심경을 기도 .백지혈인 경험해보기(혈인기도 재현) .기도봉을 단별로 배정-동시에 기도 .기도봉을 순례하며 기도식 .같은 시각에 범종을 울리며 기도하기 .야간 기도봉 순례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도봉 순례
성지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대를 초를 들고 순례(긴행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지 1박2일 훈련참가, .성지법회
특별 기도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부 기도식 .100일 기도식 .21일간 기도결제 (개별적기도, 법회시엔 단별로 절부헌중하며 사은송 따라하기) .원청20주년 법인기도식 .교구합동 100일 기도 (10일에 한번씩 교당에서 모여 합동기도, 반백일에 교구합동 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지에서 1박2일 산상기도 .백일기도-법인절 회향 기도 (절부식, 백지혈인 체험) .가족별 분향 재배 (조상 추모의 마음 상기) .21일 특별 기도식(새벽기도 참여하기) .특별정진기도(7일간)
특별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인형극을 통한 백지혈인을 나투는 상황묘사 .절(나를 잊을정도로) .교구별로 합동의식 거행 .영모전광장에서 촛불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8배 .영산성지순례 때 법인성사에 대한 훈련 실시 .혈인기도 재현 행사(촛불의식, 혈인도장) .기도식 후에 대종사님 전에 편지올리기 .교구 차원의 초청 대법회 .지역사회 보은봉공 (은혜의 쌀 나누기 행사) .법인절 기념 교당에서 무료의료봉사활동 .각자의 서원문을 낭독 후 지장을 찍어 1년간 교당에 전시하여 법회시마다 마음반조 .특별 법설(원로 및 당시의 법사님들) .대종사님 또는 선진 추모담 듣기

6) 법인절 프로그램 선호

법인절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경향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교무·교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Program	
	교 무	교 도
촛불서원기도	.촛불 기도식	.촛불의식 .촛불 행렬(지역문화 살리기, 시민동참의식)
기도봉에서 기도 재현	.성지 순례 .9인 기도봉 기도 체험	.영산에서 신앙대회 .구인 기도봉에서 혈인 당시의 기도 재현
지역사회	.봉공행사 .지역 주민과 촛불 기도 행사 .법인절 알리기 운동(보은봉공, 기도식) .은혜 사랑 나누기	.보은봉사 활동으로 신앙심 확산
특별기도식	.산상기도, 교당내 기도 훈련 .9인 선진의 기도 재현 .새벽기도하기 .전교도 7일간 새벽 특별정진 기도	.산상기도 .법인 특별기도 .남을 위한 기도 .구인 선진 체험하기(이 시대의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철야 기도(백지혈인의 이적을 오늘날 어떻게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
특별 행사	.청소년 퀴즈대회(법인절에 관한) .원불교 띠를 두르고 목탁과 촛불을 들고 시가 행진 .9인 선진에 대한 적극적 소개(일화, 후손들 중 현 교무, 교도들 소개) .기념 대법회 .학생 교도들의 9인 역할 체험 .108배 .법인절 문화를 위한 연구 .날을 택해서 좌선과 독경, 108배를 실시 .교화실천 발표 행사 .칭찬 릴레이 행사(교화실천 칭찬) .대중사님을 모신 당대의 원로 모시기(추모담 듣기)	.엄지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혈인의 의미를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문화적으로 승화시키고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하여 일원문화를 창조한다) .교도의 날로 하여 문화행사 하기 .법인절 기념식 전후로 법호수여식 하기(합동특도식도) .기도, 사무여한의 정신 체득을 위한 강연 및 기도

II. 마무리

법인절의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사회와 같이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한 본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법인절에 대한 의미를 교도들에게 더욱 이미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이를 위해서는 교당에서 법인절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내용으로는 법인절에 즈음한 특별기도를 실시하며 그 기도식을 가능하면 9인 선진님들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며, 그 와 더불어 교도들 그리고 이웃과 함께 마음을 건널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3) 교구에서는 교구의 교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법인절 행사 그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예, 보은활동, 촛불축제)를 기획하여 기운을 하나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영산에서는 교당 또는 교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 기도 프로그램을 1박2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박2일 프로그램으로는 대종사님과 선진님 추모담, 산상기도, 백지혈인 마음세우기, 성지순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5) 영산에서의 특별기도 프로그램은 1주일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각 개인 또는 교당에서 신청을 하여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6) 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법인절 문화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여 사회와 함께 하는 원불교 문화로의 계승이 가능 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rogram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예시를 나타냈다.

1) 주체별 프로그램 제안

주 체	Program
개 인	-기도문 작성 -교당 기도 참여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상대 기원 -무아봉공의 실현 -마음 나누기(떡, 엽서,...) -영산 기도 참여 등
가 족	-공동 기조 -가족 마음나누기 -더불어 사는 삶의 실현 -가족 기도회 등
교 당	-기도문 작성 -기도시간 설정 -선진님 초청 법회 -법인절 실천행동 -성지순례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 -법인절 행사 -무아봉공 활동 등
교 구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촛불행사: 개인, 가족, 친지, 부모, 형제 등에 대한 기원) -교구 연합행사(시민과 함께) -교구 연합 보은 활동 등
총 부	-영산 기도 프로그램 실시 -법인절 상징 물품(기념품:의류,장식품,소지품,악세사리 등),상징물등에 대한 개발

2) 지역 촛불 축제 예시

① 목 적 : 법인절의 상징이기도 한 촛불을 주제로 하여 모두의 마음을 연하고 기원할 수 있는 행사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② 내용 및 방법

- 1) 계획 : 지역의 NGO와 연합으로 주최한다.
- 2) 대상 : 익산 시민 누구나
- 3) 장소 : 시민공원 등
- 4) 기간 : 1, 2일 정도
- 5) 참가 : 자신, 가족, 친지, 사랑하는 이 등 자신이 기원을 해 주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접수 받음
- 6) 초 : 다양한 형태의 촛불을 준비한다.
- 7) 프로그램 : 촛불은 일정한 형태로 진열하고 그 의미를 새기면서 무대에서 Program을 진행한다.

③ 기대 효과

- 자연스럽게 범인질문화 인식
- 지역사회에 건전한 문화 정착
- 1년의 후반기 계획(참살)

3) 영산성지 특별 기도 프로그램 예시

	시간	일정
첫째날	20:00-20:30	간
	21:30-22:00	()
	22:00-22:30	간
	22:30-00:00 (9)	
	00:00-01:00	
	01:00-01:30 (간)	108
	01:30-	
둘째날	07:00-09:00	()
	09:00-12:00 ()	
	12:00-12:30	
	12:30-13:30	

발표3 - 법인기도에 대한 교단 의식조사
발표자 - 남궁 문 / 원청 백일기도 상황 설명

▶ 성명중 - 재가 출가 전교도들의 법인절을 인식하는 수준이 이정도라는 것이 아쉽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방안들이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인절하면 기도정도라는 인식을 깨야한다. 법인정신을 새롭게 한다는것, 보편적 인간의 삶으로 승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문화를 승화시켜야 한다. 창립정신, 전무출신정신이라는 해석차원을 넘어서, 인간적 보편적 삶 가치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의 한계이다. 이 바탕을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논의 되었던것을 원청 40주년을 맞이해서 실천하는 부분은 감사하다.

▶ 박용덕 - 남궁 문 조사에 고맙다. 법인절이 일과적 행사가 발생했다. 법인정신을 체험해야 한다. 법인체험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욕구충족의 행위이다. 대중사께서 방언공사 마치고 공부는 얼마나 어려울까 했을때 공부는 코풀기보다 쉽다 하셨다. 업장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죽어라 이것은 진리체험이다. 기미년 만세운동의 위기의식에서 나온것이다. 백척간두 진일보한것이 사무여한, 무아봉공이다. 그것이 아니면 진리체험 하지 못한다. 새이름을 주셨다. 전무출신이란 말이 세계인이라는 말이다. 그후 법호를 주셨다. 소태산과 동일하게 가장 나이 어린 제자에게도 정산이라는 법호를 주셨다. 주목할것은 공동생일기념이다. 무아체험을 하자는 것이다.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삼보일배, 삼천배, 무문관도 좋고 진표율사-그 자리에서 짚신을 삼은 소태산의 의미,도광사라는 절 미륵이 마당에 나와 있다. 그곳에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의 함. 그 의미들을 알 때 법인정신이 살아나지 않을까

종합토론

사회- 미진한 부분을 나누는 자유롭게 나누는 자라면 좋겠다

서문성-관계기관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구간도실에서 대중사님들 무엇을 (법인기도때) 2시간의 기도시간을 해석, 주문은 어떤 주문-옥추경을 했다는데,

사회-기존의 기도봉에서 일산봉, 이산봉등의 의견을 모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왜 문왕 팔괘인가 그 연구는 굳이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다.

신명국-봉우리 확정문제, 기도봉 장소문제 나침반 방위놓고 정하는게 타당하다. 그 장소에서 중앙봉이 보이는 곳이 타당하다. 봉우리명칭은 일산봉, 이산봉이나 기존의 명칭 다 괜찮은 것 같다. 증산교의 의식에서 출발 정감록, 주역 등의 신앙에 바탕, 팔괘 문제도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신앙, 불교나 유교의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박용덕- 문왕팔괘기를 보여줌

사회-두번째 주제로 넘어가자.

장진수- 기존의 연구를 충분히 검토 못한것은 인정한다. 앞으로 내세워야 할 것도 도덕적이고, 법인성사를 이야기할 때 기도이적이 남게 된다. 구인제자를 결속시키고 신앙의 발로가 중요하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대중사님에 대한 신심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법인성사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법인성사 뿐아니라 방언공사도 이적이다. 법인정신 의미를 신비적으로 보기보다 지극정성의 기도와 사실적 불공의 모든 과정이 기적이다.

김현- 의미있는 계기로 생각한다. 원청 40주년을 그냥 넘기지 말자. 작품이 성공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무엇을 지향하는가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것은 그것을 무엇하는거냐가 중요하다. 대중사님의 탄생, 구도, 대각, 기도 우주적 대전환, 세계사적 흐름 법인정신을 재조명하는 시기 원기 40년 재방언공사 논의할때가 중요하다. 1955년 6.25직후 사회적 피해해 있을때 이다. 20주년 행사를 돌이켜보자. 미선이 효순이 죽음을 통해 민주수호, 주권회복으로 승화시켰듯이, 40주년 행사가 과학문명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문명사회를 위한 역사적 선언의 장이 되면 좋겠다. 인권 평화 상생의 지향점이 알맹이로 나와야 한다. 개인이 거둬나는 것이 무엇하자는 것인가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용어상의 문제보다 의미로 다가가면 좋겠다.

사회- 법인정신과 법인기도 대중사님 당시의 문제를 오늘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초점인것 같다.

류성태- 원기 4년 원불교신앙의 대상이 확정되기 전이다. 천지신명이시여라고 하였다. 법신불 일원상이 결정되기 전에 법인정신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다. 천지신명, 천지허공, 방위, 구한말 유교가 치성 할 때였으므로 우주기운을 받고 유교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가장 소박할 당시의 신앙의 대상이었을 때이다. 역사적 교단사적 의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본질적인 의미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사회- 오늘 주제에 법인기도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나상호 - 혈인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체험이 형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결과가 드러난 과정이다. 진리는 체험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과산님의 대전제는 법인기도가 나아가야 할 좌표이다. 문제는 일원의 위력이라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호칭문제까지 나온다. 운동의 좌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체험이 없으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만 되는 것이다. 실무입장에서 보면 재현할 때 과거 체험을 다 경험해야 할 것인가? 팔괘기, 회중시계, 단도, 시간을 고집해야 하는가? 현실에 맞춰야 하는가 묻고 싶다. 초기교단에는 20여년 팔괘기가 모셔져 있었다. 원기 23년에 대각전에 일원상을 정식으로 봉안하였는데 팔괘기와 일원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김현- 개인들이 감동하고 변화하는것은 중요하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 뿐이다. 신문명운동은 논의의 장을 확대하자는 의미이다.

박용덕- 신앙의 대상문제는 궁궁을 사은의 은덕으로 깨우쳤다, 사중은덕을 말하고 있다. 팔괘기의 문제는 원기 13년 기념총회때도 사용되었다. 원기 27년에 일원기로 바꿨다. 초기교단사 5권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신명국 - 37쪽 표8의 법인절 원불교교도가 해야할일 목록에 기도, 기념식, 봉사는 의미있는 표이다. 법인정신의 계승이 감응을 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두 측면을 볼때 법인기도는 개인을 위한 개인기도가 아니다. 단체기도이다. 40주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원청 40주년을 기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죽어라 하셨다. 공동의 목표가 인류구원과 세계를 위한 것, 그 실천을 위한 것이다.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이 기도식보다 기도 목적이 중요하다. 기도체험이 중요하지만 다른 기도와 차원이 달라야 한다. 나를 바쳐서 세상을 구원 하겠다는 기도여야 한다. 나눔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인기도는 내 생명 전체를 바치는 것, 내가 가진 전 시간, 전재산, 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 내 전체를 바쳐서 일해야 하는데 교무들부터 되지 않고 있다. 기도 자체를 넘어서 세상을 위해 일부를 떼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내 전부를 다 바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하다. 옛날 방식대로 재현한다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 시간, 팔괘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현실에 맞게 재현해야 할 것이다.

서문성 - 신앙의 대상에 대한 논의는 원기 26년 12월 8일 부처님 성도 기념식, 부처님 깨달으신 과정을 말씀하셨고, 대각의 과정 말씀하실 때 궁궁을 말씀하셨다.

남궁문- 법인절 워크샵이 청년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감사하고 미안하다. 어려서부터 교당을 다녔지만 왜 교회가 정체되었을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해답을 우리 것 자체를 우리 스스로 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창생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100명의 인재를 키우겠다. 교단 100주년까지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겠다. 사람을 키워야겠다. 원불교 대종사님 교법으로 공부된 훈련된 인재가 필요하다. 평화, 인권,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세상이 목표 지향이지만 현실은 교회정체가 관심이다. 백일기도를 시작하면서 송대 기도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새벽 5시에 함께하는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창생을 구현할 청년이 탄생하는 것이다. 카페를 통해서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한다.

사회 -개인과 목적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불교신앙과 법인기도, 신앙의 대표적인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것인지 화두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박용덕 - 개인체험은 무아체험이 아니다.

김선명- 이번기회를 통해 교정원에 긴급하게라도 기도봉에 대한 내용과 지적에 대해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영산대 시절 토요일 9인선진 기도봉체험 순례를 하면서 체험되는 바가 많았다. 팔괘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지역주민의 정서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장님 - 교단적 노력과 모습에 감사하다. 인재문제, 교화문제, 희망과 비전을 얻은 좋은시간이었다. 말로 공감으로 끝나지 않고 교단에 방향의 전환 작은 실천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법인정신을 살려봅시다.

사회- 법인정신을 체받아서 생명력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길 기도하면서 마치다.